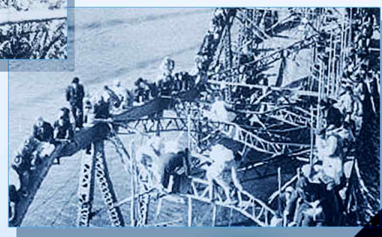


한국 현대소설의 시공간

권보드래 · 최은혜 · 고지혜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주차별 학습 내용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1	한국 현대소설의 시공간	1-1	한반도의 근대와 식민지 경험
		1-2	식민지 모더니즘과 도시 공간
		1-3	해방 전후: 트랜스내셔널의 경험
		1-4	개발-성장과 그 이후, 또는 국민과 인류
2	전쟁과 근대 세계: 이인직의 『혈의 누』를 중심으로	2-1	대한제국(1897-1910)과 신소설
		2-2	이인직과 그의 소설
		2-3	『혈의 누』의 공간과 세계
		2-4	『혈의 누』의 미래 지향적 시간
3	농민의 시간과 공간: 이기영 소설을 중심으로	3-1	식민지 조선과 농촌
		3-2	‘민촌’ 이기영의 삶과 문학
		3-3	『홍수』의 시공간과 ‘전위’
		3-4	『고향』의 시공간과 ‘농촌공동체’
4	식민지 ‘주의자’들과 이국: 이효석의 소설을 중심으로	4-1	식민지 조선의 국제적 이동 서사
		4-2	이효석의 삶과 작품 세계
		4-3	이국, 혁명적 비약의 시공간
		4-4	이국인과의 사랑을 통한 정치성의 강화
5	제국 한복판에서: 김사량의 『빛 속에서』를 중심으로	5-1	한국문학과 일본
		5-2	김사량, 시대와 문학
		5-3	『빛 속에서』의 시공간
		5-4	『빛 속에서』와 ‘재일(在日)’ 문제

주차	주차명	차시	차시명
6	근대 도시 경성: 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	6-1	모더니즘과 경성
		6-2	구보 박태원의 삶과 문학
		6-3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도시산책자
		6-4	청계천의 일상 풍경, 『천변풍경』
7	古都의 발견: 이태준의 「석양」, 「패강랭」을 중심으로	7-1	한국 문학사에서의 평양
		7-2	1930-40년대, 고도(古都)에 대한 문화적 관심
		7-3	이태준의 생애와 작품
		7-4	이태준의 「패강랭(溟江冷)」과 평양
8	전쟁의 시공간: 최인훈의 『광장』을 중심으로	8-1	『광장』과 4·19
		8-2	최인훈의 생애와 『광장』의 개작
		8-3	『광장』의 ‘밀실’과 ‘광장’
		8-4	전쟁포로 문제와 중립국의 상징
9	개발과 아파트 : 최인호와 박완서의 소설을 중심으로	9-1	1960~70년대 개발국가와 ‘아파트’
		9-2	최인호와 박완서의 문학사적 위치
		9-3	「타인의 방」과 인간소외
		9-4	「닭은 방들」과 획일화에 대한 거부
10	지금-여기와 SF의 시공간: 김초엽의 소설을 중심으로	10-1	SF의 개념과 역사
		10-2	SF의 시공간과 김초엽의 작품 세계
		10-3	차별과 연대의 문제와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10-4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죽음과 「최후의 라이오니」

강좌 개요

강좌 개발의 필요성 및 적합성

본 강좌는 한국의 현대 소설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가와 작품들을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사와 한국문학, 한국학 전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제고하고 학술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기획되었다. 우리는 이야기로서의 소설 속에서 당대를 살아간 전형(典型)으로서의 인물과 삶을 만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은 그 인물이 살아가는 세계를 구성하는 중심축이며 모든 이야기의 무대, 즉 발생 조건이다. 따라서 소설은 그 시대의 삶을 가장 생생한 형태로 만날 수 있는 언어 예술 형식이다. 본 강좌는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담아낸 한국 소설 관련 강좌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계획, 개발되었다.

강좌의 학습 목표

한국 현대문학사의 중요 작가 및 소설을 개관하면서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전개와 그에 대한 문학의 응전을 살펴보고, 아울러 각 시기 문학의 특징을 소설 내 공간적 상상과 재현의 특징을 통해 파악하도록 한다.

기대효과

한국의 주요 현대소설을 당대의 역사적 시공간 속에서 이해해보는 이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은 한국사와 한국소설, ‘이야기’로서의 역사와 소설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본 강좌는 ‘지금-여기’를 넘어선 다양한 역사적 상상력을 발견할 수 있는 한국의 주요 현대 소설들을 살펴본다. 특히 3인으로 구성된 교수진의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되는 본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은 역사와 소설의 관계를 사유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주차

한국 현대소설의 시공간 개관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한반도의 근대와 식민지 경험
2차시	식민지 모더니즘과 도시 공간
3차시	해방 전후 : 트랜스내셔널의 경험
4차시	개발-성장과 그 이후, 또는 국민과 인류

1차시 한반도의 근대와 식민지 경험

학습 목표

- 개항에서 식민화에 이르는 시기 한반도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 그 시기에 전개된 소설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인직과 이기영을 중심으로 근대 초기 및 식민지시기 문학사를 파악할 수 있다.
- 이인직과 이기영의 대표적 소설에서 그 시공간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권보드래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현대 소설의 시공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인직이라는 작가와 이기영이라는 작가가 초점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 현대 소설의 시공간’이라는 표제를 붙였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명칭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명칭 자체의 제한성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한국을 코리아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다면 별문제가 없겠지요. 코리아라는 명칭은 고려 시대, 그러니까 벌써 700년, 800년, 그보다도 더 전이겠네요. 이때 생겨난 명칭이라고 하니까요. 고려라는 나라명을 코리아라고 외국인들이 발음해서 생겨난 말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한국이라는 명칭은 엄격하게 따지자면 대한민국의 약칭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한반도 남쪽에 생겨난 나라이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제가 그 일원으로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이 수업에서 한국이라고 할 때는 비단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그 이전까지의 한반도 역사를 통칭하게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이나 대한 제국기, 이런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예정인데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1392년에, 14세기 말에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시기는 대한 제국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시기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대한 제국, 제국이었던 시절이 있었네요, 한반도에. 10년 좀 넘는 시절입니다만 그 이전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대체로 이런 체제에 속해 있었죠. 중화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아시아에 지금도 국가로서 존재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체제로서 예컨대 지금의 한반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모두 속해 있었습니다. 문자를 공유하기도 했고, 또한 달력을 공유하기도 했고 통치 체제도 유사했구요. 무엇보다 중국에 연말, 연초, 이럴 때 인

사 보내면서 근본적으로는 그 체제의 일원으로서 살았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른 기회에.

이런 시스템에서 살다가 대한 제국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생길 무렵부터 다른 세계에 접어들게 된 거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항이라는 명칭으로 이 시기를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개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항구를 연다’는 뜻입니다. 한반도가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 서만 다른 지역하고 교역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세계화된 무대에 나서게 됐다는 걸 뜻하죠. 그 최초의 사건은 강화도 조약,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로 이어서 미국하고 조약을 맺기도 했고, 이런 식의 변화를 겪게 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만이 천하인 줄 알고 살았던 세계로부터 점차 이탈하게 됩니다. 그 이전이라고 한반도에서 한반도민끼리 산다, 우리는 독자적인 존재다, 이런 의식이 없었을 리는 없죠. 비교적 일찍 독자적인 언어가 발달했고, 독자적인 문자도 이미 15세기부터 써 왔으니깐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국가라는 존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일반화된 것은 개항 이후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때쯤 "어떻게 하면 조선을 혹은 대한 제국을 부강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세계에 우리가 그중의 일원으로서 나설 것인가?", "조선의 일원으로서, 대한 제국의 한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가로 이인직이라는 사람을 꼽아 보았습니다. 이인직이라는 사람은 무엇보다 신소설 작가로 유명합니다. ‘신소설’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새로운 소설’이라는 뜻인데요. 조선 말,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가 나타나는 중이라 그랬는지 소설도 새로운 소설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설이라는 걸 썼던 사람들한테서요. 그래서 이인직은 그런 신소설을 창작한 최초의 작가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도 활발하게 활약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근대적 신문 같은 게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니까요. 한반도는 원래 신문이라는 게 거의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소식을 전 국민이 안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소 불온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일종의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했던 사람들이 처형당했다는 기사마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근대, 현대라는 시기는 이전하고 꽤 다른 셈이죠. 이인직은 이른바 친일의 경력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친일이라는 건 굉장히 화제성이 높은 단어인데요. 일본 편을 든다, 일본에 넘어가서 민족을 팔아넘겼다, 대체로 이런 뜻으로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복잡한 문제고 또 앞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일 테니까 친일 관련은 여기까지만 해 두겠습니다.

이인직이 친일이라는 이름과 결부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한국과 일본이 합해질 때 혹은 보다 엄밀히 말하면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때 그 막후 실무를 이인직이

말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설에서도 조금 문제적인 면모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면모가 있기도 합니다. 이인직 소설 중에서 최초의 신소설로 꼽히는 『혈의 누』라는 소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혈의 누』라는 건 ‘피눈물’이라는 뜻입니다. 피눈물이라니, 피눈물 흘려야 될 일이 많은 시절이라 그랬을까요? 이 『혈의 누』라는 소설은 1906년에 나옵니다. 100년하고도 10여 년 전이네요. 이렇게 나온 소설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연대는 그것보다 조금 앞인데요. 1894년부터 1902년까지가 그 배경입니다. 1894년은 한반도에서 매우 복잡한 해였거든요. 그때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대중 봉기가 있었고요, 이걸 진압하는 일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중국 군대가 출동하고, 그 중국 군대와 국제적 조약이 그때 좀 복잡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군대가 출동했으니 우리도 출동한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출동하고, 결국은 중국과 일본이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되는 그런 해였죠. 그때의 전쟁은 청일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혈의 누』라는 소설이 출발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청일 전쟁이라는 사건입니다. 청일 전쟁 와중에 평양이라는 도시,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입니다. 이 수도에 살던 어린 여자아이가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이런 게 소설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되는 소녀의 이름은 김옥련이라고 하고요, 이 소녀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평민 출신입니다. 이전 소설하고 이런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고귀한 혈통이 어떤 식의 생애를 살아가는가, 이게 소설에서 중요한 이슈였다면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중요해집니다. 옥련이는 부모를 잃고 혹은 부모와 헤어지고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전쟁통에 어떻게 될까요? 전쟁통에 부모를 잃은 어린 소녀라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옥련이는 일본인 군의관의 도움을 얻어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는 미국으로까지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옥련이 움직인 길을 따라가 보자면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위에 한반도가 있고요, 한반도의 평양에서 오사카로 건너갑니다. 일본의 오사카에서 교육을 받고요, 모종의 문제가 생겨서, 양어머니가 더 이상 옥련에게 정을 주지 않았단지 이런 류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로 배 타고 건너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머문 건 아니고요,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로까지 가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옥련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장면이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몇 쪽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평양에서 전쟁을 경험할 당시, 그리고 일본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양어머니의 박대에 시달리기도 하던 그런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혈의 누』는 당시 조선인들로서는 아주 낯선 공간을 탐험했던 셈입니다. 더더군다나 여성으로서의 더욱 그랬겠죠, 그 어린 여자아이가 일본을 거쳐서 미국까지 가다니. 이인직은 일본은 어지간히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학 경험도 있고 일본에서 신문 기자로 일하기도 했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미국에 갔다는 기록은 없고요,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

다.

한편으로 이인직에게는 익숙했을 일본이라는 공간마저 조선인들로서는 너무나 낯설었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 옥련, 이 소설의 주인공을 데리고 가면서 이인직은 이렇게 씁니다. "옥련의 눈에는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항구에는 배 돛대가 삼대 들어서 듯 하고, 저자거리에는 이층 삼층집이 구름 속에 들어간 듯하고, 지네같이 기어가는 기차는 입으로 연기를 확확 뿜으면서 배는 천동지동하듯 구르며 풍우같이 달아난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처음 보는 것이었을 테죠. 항구, 배들이 꽉 차 있는 풍경, 시장, 발달한 시장, 이층 삼층집이 있는 그런 광경, 기차, 운선, 이걸 처음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내가 그나마 알고 있는 대상을 계속 필사적으로 불러내는 거죠. "지네같이 기어가는 기차"라고 하고, 배가 내는 소리는 "천동하듯 지동하듯", 그러니까 천둥 치고 지진 났을 때처럼,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듯이요. 아마 이런 식의 태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잔뜩 호기심 가진 태도로 일본을 미국을 옥련은 모험했을 겁니다.

『혈의 누』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공간들은 학교 공간입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학교 공간은 소설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런 공간이었을 테죠. 메이지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일본의 여학교 풍경이 대체로 이와 같았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옥련은 이런 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미국은 이인직으로서도 실감을 가지기 어려웠기 때문일까요? 미국의 교실 풍경이라든지 도회지 풍경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마친 옥련은 무엇이 될까요?

『혈의 누』는 미완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옥련이 다 성장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아갔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서사를 펼쳐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 장면은 대략 알 수 있는데요. 옥련이 미국으로 함께 건너갔던 청년과 결혼을 언약하거든요. 아마 그들이라면 이런 식의 신식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나라를 바꾸고 사회의 엘리트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야심, 포부를 품었겠죠. 이 결혼식이 신식 결혼식처럼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910년대 사진이에요. 1900년대 옥련이 아마도 결혼했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연대에는 더더군다나 웨딩드레스 같은 건 아직 한반도에 나타나지 않아서요, 이 정도라면 상당한 신식입니다. 두 쌍의 결혼식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성, 남성이 감히 나란히 사진을 찍는다는 구성도 그렇고요. 모르겠네요. 그 『혈의 누』에 나오는 남성은 그래도 이런 한복을 펼쳐 버리고 연미복 정도를 걸쳤을지도요. 사람들은 "장차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결혼한다."라는 맹세를 하는 데서 일

단 서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중단된 채로 끝나거든요. 그 이후 속편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1900년대의 한반도 풍경, 그걸 소설을 통해서 엿본 셈인데요. 널리 뻗어 나갈 세계가 생겼고, 그러나 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건 아직 별로 없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그 프로그램은 구체성이 부족했고, 이런 상태에서의 서사를 조금 본 셈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옥련이나 구완서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역사가 좀 다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완서는 이렇게 말하기는 합니다. "일본과 조선을 한데 묶어서 큰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구완서가 생각했던 것은 한반도만은 아닙니다. 호의적인 시선으로 생각을 해 주자면 요즘의 EU, EC 같은 것을 생각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종의 연합체인 셈인데, 그게 연방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1%라도, 0.1%라도 있었을는지. 실제로 1910년에 있었던 일은 합방이라는 이름으로 표명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식민화였죠. 여기는 병합이라는 이름이 보이네요. 이른바 병합을 기념해서 나왔던 인쇄물입니다. 가운데 메이지 왕이 보이고 오른쪽에 고종이 보이고 왼쪽에 순종이 보이고, 이런 식입니다. 식민화 이후의 한반도는, 그렇죠, 근대화와 식민화라는 이중의 궤도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근대화만으로도 아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근대화와 식민화를 거의 동시에 구별해서 그 둘 양상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처음으로 신분 제도가 없어지고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이런 세상은 식민지 아니더라도 험난했겠죠. 식민지라는 조건은 이걸 훨씬 까다롭게 만듭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사진인데요. 영국의 동인도 주식회사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면 될까요? 그야말로 식민을 개척하는 일을 주로 과업으로 했던 회사입니다. 식민이라는 건 말 그대로는 사람들을 옮겨 두는 거죠. 일본에 사는 사람들을 실제로 조선에 살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데 편의토록 조선을 개조하기도 하고 한반도의 여러 자원들을 이동시키기도, 수탈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변화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 운동은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3·1 운동은 1919년에 있었던 대규모 대중 봉기 운동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운동이 두 달 정도 계속되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요. 사망자만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추산이 아니네요. 정확한 숫자만도 1,000명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의 민족의식이랄까, 반일 의식은 돌이킬 수 없이 확고한 것이 됐습니다.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 해방

시켜 달라, 이렇게 전 국토에서 펼쳐 일어났는데 1,000명이 죽고 수만 명이 감옥에 가고, 이런 식의 결과로 끝난 셈이니까요. 한편으로는 여기 아래 보이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은 여학생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신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두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이끌어 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런 사람들도 원래라면 봐야겠죠.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같은 작가들인데요.

이 작가들은 다른 기회에, 3·1 운동 이후에 본격적으로 펼쳐진 한국 문학의 장을 이해하는 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기는 한데, 오늘은 이 사람들을 건너뛰어서 이기영이라는 작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기영이라는 사람은 무엇보다 노동자, 농민의 현실에 눈을 돌린 작가로 유명합니다. 식민지 시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표적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20년 지나서 3·1 운동 지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한반도에서는 사회주의의 물결이 아주 강력해졌고, 사회주의를 통해서 계급을 문제 삼는 노선을 통해서 민족해방도 이룰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거든요. 그 노선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 중의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설을 쓰기도 했고, 나중에는 분단 이후에는 북한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1980년대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이것도 다른 기회에 들으실 수 있는 주제면 좋겠습니다. 이기영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동양척식회사 사진을 보셨죠? 그러면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수탈 같은 게 본격화됐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죠. 일단은 공유지의 약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즉, 공유지, commons라고 할 수 있겠죠. 근대 이전에는 사실 토지 소유, 아니면 일반적으로 재산 소유권 자체가 요즘하고는 달랐다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배타적인 소유권은 별로 발달하지 않아서 예컨대 어디에 논밭이 있다고 할 때도 물론 지주의 소유권도 있었지만 국가의 절대적 소유권도 있고, 거기 땅 부치고 사는 사람들도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정도의 소유권이 있고 등등의 복잡한 체제였다고 합니다. 이랬던 게 토지 조사 사업, 그런 게 1910년대에 중요하게 벌어지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관계로 옮겨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토지에서 소외된, 훨씬 더 가난한 농민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작인 비율이 80% 가까이 됐다, 전체 농민 중에서도 이런 통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소작료가 정해진 것은 50%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한 소작료 부담을 지고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50% 소작료라니, 그것만 해도 무시무시할 것 같은데 말이죠. 1년 애써서 농사지어서 받은 바치고 나는 그런 식인데요. 요즘 조금 더 와닿는 비유대로 하자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절반은 임대료로 내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하니까요.

이기영이 1933년에서 1934년에 걸쳐 발표한 『고향』이라는 소설은 바로 이런 상황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남녀 각각 한 명이 일단 중요한데요. 여기 보이는 사람이 ‘갑숙’이라는 여성 주인공이고요. 여기 보이는 사람은 ‘김희준’이라는 남성 주인공입니다. 갑숙은 지주의 딸이에요. 반면에 김희준은 농민의 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살 만 했지만 아들 유학 보내고 이러는 와중에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진 그런 농민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엇갈린 처지에서 다시 만나게 돼요. 농민의 아들인 김희준이 사회주의자가 돼서 선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정확히 말하면 지주의 딸이 아니라 마름의 딸인데요. 마름이라는 존재는 지주를 대리해서 토지를 관리하는 인물입니다. 이 마름의 딸인 갑숙이라는 여성이 희준의 지도를 받아서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게 서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을 두고 전체 서사를 요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장면에 나오는 것 같은 농민들을 획 지나가 버렸네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말이죠. 이 건 두레 장면입니다. 두레라는 건 같이 노동하는 한반도에서 오래된 관습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비슷한 관습이 있겠죠. 농민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제일 먼저 마름의 눈부터 김을 매는 데서 시작하지만, 김을 맨다는 건 잡초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호미를 차고, 어떤 모습인가요? "허벅다리까지 드러난 장판지가 개구리를 잡아먹은 뱀의 배처럼 불쑥 나온 다리로", 쫓아오실 수 있겠어요? 장판지가 무릎 뒤편, 아랫다리 쪽, 탄탄한 뒤쪽이 "개구리를 잡아먹은 뱀의 배처럼", 다리가 그렇게, 다리 근육이 푹 튀어나왔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렇게 노동으로 단련된 신체들이 『고향』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주에, 실제로는 마름에 맞서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간단한 승리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오늘은 이렇게 아주 거칠게 1920년대, 30년대를 거쳐서 중요했던 농민의 삶, 소작 쟁의, 그런 속에서의 한반도의 시공간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 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출판, 2014.
- 이상경, 『이기영, 시대와 문학』, 풀빛, 1994.

2차시 식민지 모더니즘과 도시 공간

학습 목표

- 1930년대 전후, 한반도 근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이효석, 박태원, 이태준의 작품에 나타난 ‘도시’의 표상과 그 의미를 식민지 모더니즘의 맥락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현대 소설의 시공간’이라는 주제를 두고 식민지 모더니즘의 작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이효석, 박태원, 이태준이라는 작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식민지 모더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민지라는 시기는 한반도가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던 1910년에서 1945년을 뜻합니다. 근데 이 식민지라는 시기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를 아직까지도 남겨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 중의 일부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식민지 시기의 수탈과 근대화 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였느냐, 이런 것일 텐데요. 식민지 시기에, 예를 들어, 한반도만 따졌을 때도 거기에서의 총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 철도도 생기고 도로도 생기고 도시도 발달하고 공장도 늘어나고 이랬던 건 사실일 테니까 말이죠. 이 복잡한 문제를 직접 건드릴 수는 없겠고요, 지금은 식민지라는 조건 속에서도 근대화가 진행되었다는 것, 이 점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근대화의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도시화죠. 지금 서울이라고 불리는 곳, 식민지 시기에 는 경성, 게이조후라고 불렀던 이 도시는 그 도시화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경향이 나타나고, 모더니스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작가들이 출현합니다. "모더니즘이 뭔가요?", 만약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기서 따지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네요.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는데요. 1차 대전 전후한 시기, 조금 빠르게 치자면 19세기 말부터 유럽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문학적 경향, 예술적 경향이고, 그게 근대 문명에 대한 도취와 근대 문명에 대한 강한 회의, 이걸 동시에 함축하고 있었다, 양식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소설, 쉬운 시들하고는 많이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통과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살펴볼 사람은 이효석이라는 작가입니다. 1907년에 태어나서 1942년에 세상을 떠났네요. 30대 중반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이효석보다 지금 너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강원도의 평창이라는 곳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강원도 가 보신 적이 있을까요? 보통 강원도라고 하면 바다와 산과 휴가와 이런 이미지로 많은 한국인들에게 각인돼 있는 지역인데요. 그렇게 단순할 리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온 작가는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를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공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른바 동반자 작가로서 작가 생활을 시작합니다. 동반자 작가, Fellow Traveler라는 존재들은 사회주의 노선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 조직에 가담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톤으로 활약했던 작가들을 뜻하는데요. 이러다가 1930년대 초를 지나면서 사회주의적 노선을 버리고 미학주의라고 할 만한 그런 경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학주의, 유티주의, 탐미주의, 다용법이 비슷한데요. 그렇게 하면 대략 이해를 하실 수 있으려나요? 한국인들에게 이효석이라는 이름을 물어보면 아마 누구나 "아!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답을 할 겁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첫대목만 말씀드려 볼까요?

메밀꽃 필 무렵의 들판을 "하얀 소금을 흩뿌려 놓은 듯이 흐뭇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쩐지 예사롭지 않은 묘사지요? 그런 묘사로 무엇보다 유명한 소설입니다. 줄거리 자체는 '어느 장돌뱅이의 옛사랑 찾기'라고나 할까요? 오늘은 이효석의 소설집 중에서 첫 단편집이었던 『노령근해』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노령'이라는 건 '러시아 영토'를 말합니다. '러시아 영토 근처의 바다'라는 것인데요. 이 소설집 혹은 소설집의 소설들을 도시, 모더니즘, 이런 문제와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효석이 동반자 작가로 출발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사회주의적 색채를 강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도시 문물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라는 명분 속에서 국가를, 지역을 넘어선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추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모더니즘하고도 통하는 면이 짙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삼위는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좀 전에 봤던 『노령근해』 중에서 「북국사신」이라는 단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국사신」의 뜻은 '북쪽 나라에서 보낸 사적인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냥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아마도 블라디보스토크일 이 북쪽의 항구에서 조선인 청년인 화자가 이런저런 견문을 하는 것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건은 어떤 카페에서 사사라는 러시아 여성을 만나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명분은 사회주의고 배경은 러시아고 블라디보스토크이고, 이렇게 갓 사회주의에 들어선 나라

의 생기발랄한 풍경을 보라, 이런 게 명분이기는 한데 소설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사사라는 여성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 여성이 내건 키스 경매라는 데서 내가 어떻게 영광을 차지하게 됐는지, 이런 것이거든요. 키스 경매라... 그전에 사사가 어떤 존재 인지를 보면요. 그러면 사회주의와 심미주의, 탐미주의 같은 게 묘하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사, 밤에는 카페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낮에는 해상 국가 보안부의 여서기입니다. 예전에 모스크바에 있을 때는 열렬한 콤포몰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혁명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게 혁명가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밤에 카페에 나와서 이렇게 매혹적인 자태를 뽐낸다는 건가요? 키스 경매라는 얘기를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밀도 끝도 없이 어느 날 밤 사사의 키스를 두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는 사람에게 영광을, 이런 식의 키스 경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사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나’는 그 경매에 참여해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부르고 권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1,000루블을 부르거든요. 1,000만 원보다 많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둘이 서로 사랑을 확인했다, 이런 훈훈하다면 훈훈한, 그러나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인데요. 한국 현대 소설이 이런 식으로까지 공간을 넓히는 모습이 이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박태원이라는 작가도 한번 살펴볼까요? 박태원과 이효석과 이태준을 오늘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같이 묶는 까닭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구인회라는 단체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한국 문학사를 대체로 살펴보자면 3·1 운동이라는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10여 년 동안은 사회주의 문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그런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가속화되고 사회주의에 대한 억압이 거세지고, 그리고 다른 경향이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주류로 존재하던 사회주의 문학이라는 게 사라진 다음에 번성했던, 본래는 권리 없는 문학,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회주의가 주류화되는 와중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다양한 욕망의 개화라고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까 본 이효석이라는 작가도 그렇고 박태원이라는 작가도 이 새로운 경향에 속해 있습니다. 박태원이라는 작가는 하지만 나중에 월북해서 북한 문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다른 얘기니까 조금 뜻밖의 전개이더라도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죠.

구인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저기 이상도 보이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여기에서 발간한 『시와 소설』이라는 기관지가 보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 자료로 잠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식민화와 더불어 근대화가, 따라서 당연히 도시화가 진행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사진은 연대가 썩 잘 맞지는 않습니다. 1950년대 사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식민지 시기에도 이 건물이 이미 있었으니까 그런 시선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쓰코시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으로 1930년에 서울에서 문을 열었던 백화점입니다. 지금은 신세계 백화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 오시면 신세계 백화점은 지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용하게 여러 가지 곡절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아! 1930년의 이 건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도 생기고, 그렇죠? 도로도 넓어지고 자동차도 다니고 카페도 생기고, 이런 저런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채우게도 됩니다. 물론 대도시라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이기는 했습니다. 1930년대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볼까요?

이것은 30년대 초반 기준인데요. 그 당시에 서울이 70만 명, 반면 도쿄는 550만 명, 런던은 800만 명, 그렇죠. 서울의 경우 30년대 말이 되면 지역 자체가 넓어지면서 100만 명 인구를 돌파합니다. 지역 자체가 넓어진다는 건, 왜 가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떤 도시의 경계를 넓힌다, 이런 행정 조치가 내려질 때요. 30년대 서울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100만 명 가까운 인구라는 게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100만 명 규모의 도시란 흔한 존재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좀 복잡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남쪽은 일본인이 북쪽은 조선인이 더 많은 이중 도시 같은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은 백화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단층 건물이 많고 단조로운 도시 경관을 특징으로 하기도 하고 등등입니다. 이런저런 양옥들도 보이는데요. 하나만 짚어 보고 갈까요? 이거 아직도 볼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당시의 조선은행, 오늘날의 한국은행입니다. 박태원이 쓴 소설 중에서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먼저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구보라는 이름의, 구보라는 별명의 소설가가 서울에서 하루를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런 소설을 쓸 수 있겠네요. 별 직업도 없는 구보라는 소설가가 별 약속도 없는 날이었어요.

나와서 그야말로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거죠. 이 찻집에도 갔다가 저 찻집에도 갔다가 공연히 전차도 타 보다가 거리를 배회하기도 하다가 여기에도 가 보다가 백화점에도 들르다가, 이런 식입니다. 도시가 없다면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방식의 소설인 셈이죠. 도시 산책자라는 말은 워낙 유럽에서부터 유명한 말인데요. 그런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30년대 초반의 카페의 풍경이랄까요? 잠깐 보시겠어요? 다방의 오후 2시입니다. 요즘 서울의 오후 2시는 어떤가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보통. 거기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음악을 듣고, 대개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인생에 피로한 것처

럼 보이는, 느끼는 젊은이들입니다. 가끔 잘 빼입은 그런 사람들이 탄력 있는 모습으로 여길 드나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서울의, 당시 경성의 카페는 그것보다는 낙오자들의 공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복잡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통해서 본 도시라는 게 도심, 카페, 이런 중심이었다면 『천변 풍경』이라는 소설에서 박태원이 보여 준 풍경은 꽤 다릅니다. 『천변 풍경』은 지금의 청계천에 해당하는, 그때도 청계천이었네요. 청계천 주변의 풍경을 그려 내고 있는 연작식 장편인데요. 그러니까 A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B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장면은 바로 이 청계천 빨래터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날 모습하고 비교해 보면 새삼스럽네요. 거의 1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여기서 보여 주는 도시는 그러니까 아까 카페로 소설가가 돌아다니는 도시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요즘 우리가 보기에는 도시라지만 오히려 촌락 공동체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많은 도시입니다.

193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간단하게 보신 셈입니다. 그러면 서울만 보기는 아쉬우니까 잠깐 평양도 볼까요? 이태준이라는 소설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태준이라는 소설가는 생애가 역시 복잡한데요. 누구의 생애인들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거의 고아로 자란 사람이고요. 강원도, 지금의 철원 지역을 고향으로 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활약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평양을 배경으로 남긴 소설이 한 편 있습니다. 평양은 대체로 짐작하시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북한 영토네요. 지금은. 이태준의 『패강령』이라는 소설을 잠시 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패강’은 대동강입니다. 평양을 관통해 흐르는 그 강이지요. 평양에 대한 이야기라고 짐작할 수 있겠네요. 1938년에 나온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이는 평양의 모습은 앞서 이효석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혹은 박태원이 서울에서 보여 준 모습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대적 도시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평양이 덜 발달한 도시라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서울보다야 덜 발달했겠죠. 그렇지만 평양도 근대화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열성적으로 앞선 지역이었지요. 그만큼 빠르게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간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준은 그런 모습을 봐 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준이 보는 평양은 노스텔지어로 가득 찬 시선, 그것에 의해 조명된 평양입니다.

한 번 예를 볼까요? 부벽루라는 다락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락은 예전 한국의 전통적 건축 양식 중의 하나인데요. 벽이 없이 지붕만 있는, 보통 경치를 조망하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퇴락할 대로 퇴락한 모습인 거죠. 빛 낡은 편액, 액자들이 걸려 있을 뿐, 새 한 마리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것만큼 오래된 나무 기둥들, 이런 위의 목조 장식들, 우직한 순정이 풍겨 나옵니다. 이 평

양은 근대 도시인 오늘날의 평양, 1938년 당시의 평양하고는 상관없어 보이죠. 이런 평양을 보여 주면서 이태준은 "조선 자연은 왜 이다지도 슬퍼 보일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찍어서 보여 드린 게 부벽루인데요. 오른쪽은 요즘의 부벽루 풍경입니다.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아침 운동하는 장면이라고 하네요. 이태준이 왜 1938년에 이렇듯 모던 감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 감각을 보여 준 것일까요?

이태준은 구인회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복고 취미라고 할까?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노스탤지어, 이런 걸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져 가고 있는 책, 사라져 가고 있는 예전의 동양적 풍경, 난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을 각 별히 사랑했죠. 조선 시대의 이런저런 골동품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집기들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근대 도시를 살아가고 근대 도시를 배경으로 아주 스타일리스트로서의 개성이 강한 문장을 쓰면서도 이태준은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패강랭』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절은 더더군다나 사라져 가는 것의 가치를 절감케 하는 시절입니다. 이런 시절이거든요. 인물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소설가 ‘현’이 화자고 교사인 ‘박’이 있고 사업가인 ‘김’이 있습니다. ‘김’은 잘나가는 사업가입니다. 반면 ‘박’은 조선어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1938년이니까 조선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와중입니다. 시간이 반이 없어졌어요. 얼마 안 있어 학교에서 쫓겨날 것만 같습니다. 사실 소설가 현이 바로 이 편지를 받고 평양으로 달려간 것이었거든요. 이 『패강랭』은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로 끝납니다. 동양의 오래된 책인 『주역』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서리를 밝게 되거든 단단한 얼음이 이를 것을 생각하라."는 정도. "아직 춥지 않다. 더 추운 날, 더 가혹한 날이 닥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모더니스트들도 역시 그나마 누렸던 짧은 스타일상의 자유 같은 걸 포기해야 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여기서 조금 지나면 조선어로, 한글로 창작을 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말이죠.

앞에서 본 작가들이 그래서 다 나중에는 일본어 창작을 적어도 병행하게 됩니다. 이효석도 박태원도 이태준도 그걸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겠죠

【참고문헌】

- 권은, 『경성 모더니즘: 식민지 도시 경성과 박태원 문학』, 일조각, 2018.
- 최은혜, 「운동가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낭만성과 그 함의: 송영과 이효석 소설에서의 이국」, 『현대문학이론연구』 88, 현대문학이론학회, 2022.
- 황종연 외, 『고도의 근대』, 동국대 출판부, 2012.

3차시 해방 전후 : 트랜스내셔널의 경험

학습 목표

- 식민말기에서 해방과 전쟁을 거쳐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한국 사회와 문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 김사량과 최인훈의 소설을 통해 이 시기 한국 소설이 세계적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조명했는지, 특히 이주와 난민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1930년대, 40년대, 이런 시절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해지죠. 아마 누구나 2차 세계 대전이라는 사건을 연상을 하실 겁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대규모 파괴전을 겪지는 않고 있네요. 제2차 세계 대전은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잘 알고 계실 바와 같습니다. 1931년에 일본이 만주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시작해서 1937년에는 중국 대륙 전반을 침략하는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한반도에 대한 통제도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글쎄요, 일본 제국의 판도 자체는 매우 커지는 상황에서의 일이지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왼쪽은 한반도의 것은 아니고 타이완 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만 이른바 국어 상용이 강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어를 학교에서건 집에서건 유일한 언어로 써야 된다, 이런 식이었죠. 오른쪽은 지원병 훈련 장면인데요, 처음에는 타이완이나 조선 같은 식민지 청년들을 지원병으로 모집하다가 나중에는 징집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노동을 위해서 또는 위안부라고 불리는 그런 영역 속에서 젊은 청년 남녀들의 강제 징용이 이루어지죠.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식민지 말기, 그리고 식민 후의 전쟁, 분단,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활약했던 두 명의 작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식민 말기의 작가로는 김사량을, 그리고 해방과 분단과 전쟁의 문제를 다룬 작가로는 최인훈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사량이라는 작가는 일본어로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나 국어를 상용해야 하고 일본어를 다 써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어의 영향력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조선인들의 일상에서 그런 경향은 뚜렷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일본어로 글을 쓰고 일

본 문단에서 인정받는 작가들도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김사량은 그중의 한 명입니다. 일본어로 글을 썼다고 하면 당연히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 이런 걸 상정하게 되기가 쉬울 텐데, 김사량은 그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면모를 보입니다. 해방이 되기 얼마 전, 1945년 초에는 중국에 갔다가 일본의 영향력에서 탈출해서 조선 의용대라고 하는, 독립을 기도하는 부대라고 해야겠죠? 이쪽에 합류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어로 글을 썼다는 문제는 그런 층위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였던 거죠.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더 필요한 일일까요? 조선어를 지킨다는 문제와 일본어로라도 조선의 문제를 알린다, 일본어로라도 저항의 문제의식을 계속해 나간다는 두 가지 갈래 중에서 말입니다. 김사량 소설 중에서 제일 유명한 『빛 속에서』는 아마도 하루오라는 소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아마도 하루오는 이런 식으로 소개되고 있네요. "알 수 없는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 무리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항상 그 주위를 소심하게 맴돌았다.",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보다 작은 아이들은 괴롭히네요. 생김새도 그야말로 좀 음산합니다. 아이인데도 머리숱도 적고 키는 그런데 멀대같이 크고 눈이 약간 희멀겑고, 흰자위가 많고, 이런 거겠죠. 이 아이가 사실은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혼혈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정체성 문제를 품고 있다는 것,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는 것, 이게 대체로 이 소설의 전개입니다.

이 소설의 화자는 도쿄대생으로 지금 말하자면 일종의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거든요. 그 자신 조선인 출신이지만 일본인처럼 대우받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의 배경은 당연히 일본이겠죠. 김사량같이 일본어로 글을 쓴 사람들이 늘 일본을 배경으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또 중요하게 등장하기는 합니다. 일본 중에서도 도쿄, 그중에서도 오시아게라는 도쿄 변두리 지역입니다. 대도시 변두리가 보통 그렇죠. 오사카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카이노 같은 데가 그렇죠. 도쿄 지역 주변의 오시아게도 조선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그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공장 지대도 가까웠거든요. 이런 걸로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봉사 활동 나간 조선 출신의 대학생과 그 지역에서도 말썽꾸러기인 혼혈 소년 사이의 만남, 이런 걸 그려 내고 있는 게 『빛 속으로』인 셈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빛 속에서』는, 제가 『빛 속으로』하고 『빛 속에서』를 지금 왔다 갔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테니까 이게 원래 한국어 소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제목은 『光の中に』라는 것이고 『빛 속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빛 속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거든요. 『빛 속에서』일까요, 아니면 『빛을 향해서』 『빛 속으로』일까요? 이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소설의 화자인 남 선생, 일본어로는

미나미 선생님이 아마다 하루오를 데리고 가는 곳이 도쿄 시내의 백화점이며 공원입니다. 그 풍경을 제가 가지고 와 본 것인데요. 마쓰야 백화점이 왼쪽에 보이고 오른쪽에 우에노 공원의 풍경이 보입니다. 한국 소설이란 어떤 소설일까요? 한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어로 쓰인? 한국의 문제를 담은? 한국인이 쓴?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텐데요. 한국 소설이라고 범칭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다채로운 시도를 보이는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빛 속으로』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바깥을 배경으로 하고, 또한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쓰였으나 여전히 한국 문학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중에서도 자이니치라는 존재는 오늘날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존재죠.

자이니치는 『빛 속에서』의 아마다 하루오와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아마다 하루오는 혼혈이었잖아요. 자이니치는 조선에서 건너간, 그렇지만 일본에서 영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명칭인데요. 이제는 자이니치 3세대까지 내려왔네요. 4세대도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있겠네요. 이런 존재들을 생각할 때 『빛 속으로』는 기억해 볼 만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파친코』 이런 소설이 자이니치의 존재를 부각시켜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존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고, 우리는 점점 더 한 국가 안에만 머무르지 못하는 존재가 돼 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덧붙여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최인훈이라는 작가를 볼까요? 최인훈이라는 작가하고 김사량이라는 작가 사이의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말입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김사량은 평안도 출신이고요. 최인훈은 함경도, 북한을 볼 때 보통 오른쪽 부분에 보이는 그쪽 출신입니다. 한국 전쟁 때 월남해서 그 이후로는 꼭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장편 소설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인데요. 소설 자체는 1960년에 나왔습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하실는지, 저로서는 피난민, 민중의 수난, 이런 생각이 먼저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왼쪽 사진의 것이 먼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폭격을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폭격, 많았죠. 최근에 이런저런 연구서도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인훈도 전쟁기의 폭격을 소설의 여러 종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장』은 직접 그 전쟁의 현장에 착목한 소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볼 수 있는 조금 전에 본 것 같은 피난의 모습, 폭격의 참상, 이런 게 『광장』의 중심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광장』의 중심이 아니라는 게 『광장』의 인기의 비결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까 『광장』이 1960년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한국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거의 10년이 흐른

다음이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다양한 소설이 나왔을 텐데요, 그 대부분은 전쟁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걸 핵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더더군다나 많은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이 한국 전쟁은 이유도 명분도 없는 전쟁처럼 보였습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남침으로 전쟁을 시작했던 북한의 일부에서는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기대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에게는 이 전쟁은 이유 없는 내전에 가까웠습니다. 남한에서도 정부는 북진통일이라는 정책을 내세웠지만 이념적으로 명백하게 대립한다는 걸 생활에서 실감할 수도 없고, 적대국도 아니고, 바로 내 가족, 내 친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광장』은 이 문제를 이 전쟁의 근본을 묻는 식으로 돌파합니다. 1950년대의 소설들이 "대체 이 전쟁이 왜 일어났지? 왜 이 전쟁이 이다지도 끔찍했던 거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이 전쟁에 압도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응답을 했다면 『광장』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전쟁에 응답한 셈이죠. 그 응답의 초점에 놓여 있는 것이 포로 문제입니다. 한국 전쟁기의 포로는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포로 문제 때문에 전쟁이 그렇게 길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전쟁 자체는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대치 상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부터 휴전 협정 논의가 오갔던 거죠.

근데 그럴 수 없었던 게 각각 적지 않은 포로들을 잡고 있는데, 이 포로들을 그냥 원소속으로 되돌리는 이런 간단한 방식이 이미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전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포로를 잡으면 원소속으로 되돌리는 게 당연했겠죠. 아니면 자기 노예로 삼거나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 인간의 자유며 권리며 이런 문제가 이때쯤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개입하게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습니다. 한국 전쟁은 그중에서도 점점, 아주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었던 전쟁인 셈이고요, 그래서 이 포로들을 그냥 원소속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자유 의지를 물어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 줄 것이냐 등등이 문제가 되면서 전쟁이 길어집니다.

『광장』이라는 소설은 바로 여기에서 남한 출신이지만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군 장교로 싸웠고, 그렇지만 포로가 돼서는 남한도 북한도 택하지 않으려는 청년을 보여 줍니다. 독특한 거죠. 실제로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76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정말 적은 숫자 아닌가요? 그 많고 많았을 전쟁 참여 인원 중에서 76명이라니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중국군이 나중에 타이완을 선택해서 타이완 깃발을 들고 비행기를 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건 오히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의 경로죠, 북한 출신이지만 남한을 선택한다든지 남한 출신이지만 북한을 선택한다든지. 그렇지만 『광

장』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게 『광장』이 오랫동안 살아남은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장』은 제일 처음에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은 형태로 실렸고요, 1960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단행본으로 발간됐고, 내용도 여러 차례 개작됐습니다. 열 차례쯤 개작돼서 그 개작본 중에 도대체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광장』의 주인공은 이명준이라는 청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 출신이지만 북한을 선택했고 최종적으로는 중립국으로 가고자 한, 그렇지만 거기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아마 자살이겠죠, 사라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말입니다. 이때 중립국이란 인도였는데요, 실제 현실 속에서는요, 인도가 한국 전쟁에서 한 역할은 복잡하지만 넘어갈까요? 궁금하실까요? 인도는 한국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의료 지원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의 수상이었던 네루가 한국 전쟁이 세계 전쟁이 돼 버릴 걸 매우 우려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많은 세계인들이 그런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말하자면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포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 인도인 장군도 보이고 그러죠. 중립국 행을 선택한 포로들이 인도로 떠나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이런 장면이 『광장』에서는 유명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겠소?", 남북 장교가 물어보는 식으로 돼 있죠. 실제 역사는 조금 다르지만 일종의 문학적 허용이라고 통과해 봅시다. "중립국."이라고 주인공 이명준이 말합니다. 여러 가지 회유가 있따르지만 중립국인 거죠. 한국 소설은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공간과 대면하게 됩니다. 한반도 전체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가운데 허리 잘린 한반도인 거죠. 이게 참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결코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제약입니다. 86년 이전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해외여행이 금지돼 있을 때는 더더군다나 그건 완전히 닫힌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남한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형국인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섬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광장』은 바로 이 섬에 갇힌 사람들의 역설적으로 드넓은 상상력을 보여 줍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이 갇혀 있는 상황의 기원이 되는 한국 전쟁을 다시 생각할 것을 요청하고 다른 역사를 기획할 것을 또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장』은 바로 이 사건, 4·19라는 사건하고 통하는 소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0년의 4·19라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건 건국 이래 10여 년간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몰아낸 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그 이전까지 한국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빈곤에 대한 절망이라고 할까요? 혹은 비민주, 독재에 대한 자포자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조금씩 더 살펴보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 곽형덕, 『김사랑의 일제 말 식민지 문학』, 소명출판, 2017.
-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상상, 2012

4차시 개발-성장과 그 이후, 또는 국민과 인류

학습 목표

- 개발이 본격화된 197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 소설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 박완서와 최인호의 소설을 통해 한국 도시공간의 형성을 특히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와 관련해 설명할 수 있다.
- 오늘날 SF의 탈국가, 탈지구적 상상력을 김초엽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오늘날의 한국을 말할 때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언급하지 않기 어렵습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은 1963년에서 1979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인물이고요. 1963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2년간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1961년 5·16 쿠데타라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 사건이 박정희가 주역이 됐던 사건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4·19와 5·16, 이런 서사에 익숙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건국 이래 10여 년간 대통령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또한 일으키다가 1960년 4·19라는 사건에 의해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4·19라는 사건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거의 전국 규모의 민주 요구 봉기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중요한 유전자라고나 할까요? 한국의 거리 시위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4·19 이후에 우리들은 잘살았습니다."가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좀처럼 벌어지지 않죠. 4·19 이후 1년 정도 정말 심각한 혼란이 계속됐던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시위라는 것의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잘한 불편에도 그 방법을 택하게 되기도 했고, 이런저런 권리들을 요청하는 목소리들도 들끓었고,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정당들이 난립했고 언론도 늘어났고, 어떻게 보자면 혼란, 어떻게 보자면 당연한 다양성의 개화, 그러나 조금 어지러운 정도였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사실 그 정황을 못 견뎌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1961년 5·16이라는 사건은 그런 혼란 또는 분출의 끝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따지는 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한국인들과 한국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박정희에 대한 반응은 크게 어긋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경제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70년대 소설을 조금 보고,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오늘날의 한국 소설의 시공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63년 대통령이 된 이래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이 전국적인 개발을 선도해 나간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사실 의견을 모으고 이러는 민주적 방식으로는 속도가 더더질 수밖에 없기는 하죠. 모르겠습니다. 그때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한 걸음씩을 걸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훨씬 기초가 탄탄한 세상, 훨씬 더 서로 믿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기는 합니다. 이 당시에 박정희 주도의 속도전보다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그렇지만 실제로 있었던 건 박정희 중심의 속도전이었죠. 위에 보이는 것이 고속 도로 건설 사진입니다. 오늘날 경부 고속 도로하고는 꽤 달라 보이는데요, 아래는 강남 개발 사진인데요, 강남이라는 지역 자체가 고속 도로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죠. 강남은 아시죠?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있었던, 이 마당에.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강이 한강이고요, 이 한강 남쪽을 강남이라고 부릅니다. 그중에서도 서초, 강남구 일대를 특히 강남이라고 칭하는데요, 이 지역이 서울 구도심과 연결되려면 당연히 다리가 필요한데, 이 다리는 식민지 시기에서부터 건설된 게 있었습니다만 지금 한남대교라고 불리는 이 다리가 고속 도로하고 바로 직결된 다리가 되면서 강남 개발을 가속화시키죠. 강남 지역 땅값은 1,000배도 오르고 2,000배도 오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 내막도 복잡한데요, 정치적 내막도 좀 섞여 있는데, 오늘 화제는 아닌 것으로 치겠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개발과 성장을 보다 보면 아파트라는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좀 더 근간을 보자면 공장이라든지 농촌 지역의 변화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하겠지만요, 당장 일상의 감각 속에서 와닿는 변화 중의 하나가 아파트인 거죠. 왼쪽은 여의도에 아파트를 짓 건설할 무렵의 1960년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더 유명한 사진입니다. 강남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농민이 밭 갈고 있는 장면, 이게 불과 50년 전이네요. 오늘날의 서울은? 서울이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을 때 그 서울 공간에서의 문학적 가능성들을 실험한 작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중에 최인호와 박완서라는 작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보실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호라는 작가는 45년생이네요, 딱 해방되던 그해 출신, 그해 출생입니다. 이 사람은 70년대 청년 문학의 기수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모던한 문체, 새로운 감각,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뭐가 그렇게 새로웠나요?"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글썽요. 세상의 올바른 것에 대한 집착 따위가 별로 없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집착 따위가 별로 없는, 그런 경쾌한 감각을 말할 수도 있겠고요. 짹짹하고

스피디한 단문을 말할 수도 있겠고, 도시의 젊은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 같은 걸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1971년에 나온 『타인의 방』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것 잠깐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타인의 방』, 1971년,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그 아파트 건설 장면들하고 거의 동시인 거죠. 이 『타인의 방』 속의 주인공은 젊은 남성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파트라고 보이는 공간에 삽니다. 며칠 출장을 갔다가 집에 돌아온 길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아내가 있을 줄 알았는데 땡땡땡땡,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옆집에서 나와서 "누구시죠?", 복도식 아파트인가요?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옆집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시작되는 소란 속에서 주인공은 집에 들어오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점점 사물들이 커져 가는 것 같은 환상 또는 환각에 사로잡힙니다. 테이블도 커지는 것 같고 의자도 자기 존재를 주장하는 것 같고 냉장고는 뒹뒹 외쳐대는 것 같고, 이런 식이죠. 그 속에서 자기가 점점 점점 사물이 돼 가는 것 같은 느낌, 여기에 휘말리는 게 이 소설의 거친 개요입니다.

요즘 어디서들 사시나요? 한국에서는 집합 주택에서 사는 인구가 50%를 돌파한 것은 한 20년쯤 됐고요. 요즘은 집합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외에도 다세대, 다가구, 이런 식으로 불리는 주택까지 포함을 하면 그 비율이 80%를 넘는다고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아파트는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누구나 한국에 오면 즐비한 아파트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관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말이죠. 도대체 왜 아파트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것일까요? 그냥 주거 공간으로서,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투자의 매개로서? 아직도 아파트를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파트의 문화사 같은 걸 살필 때 부딪히게 되는 혼란 장면이 이런 거죠. 바로 이웃에 살지만 나는 당신을 모른다. 이 장면이 시작된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박완서라는 작가는 조금 전에 본 최인호보다 훨씬 연배가 위입니다. 10년도 넘게 위인데, 활동은 최인호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서를 뒤에 두었습니다. 오늘 잠깐 살펴보는 『젊은 방들』이라는 소설도 최인호의 『타인의 방』보다 3년 늦게 나왔고요. 실제로 작가 박완서가 아파트로 옮긴 건 80년대 초라고 들었습니다. 보문동이라고요, 고려대학교 바로 근처인데요. 거기에 박완서 씨가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잠실이라는 곳에 있는 아파트로 80년대 초에 이사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70년대에 아파트를 선택하기 시작하고 80년대에 이사하기 시작하고 90년대 지나서 21세기가 되면 대체로 아파트에 어떻게든 정착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아파트에 정착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저는 어디

사냐고요? 저는 주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닭은 방들』 속에 나오는 서사는 이런 식입니다. 젊은 주부가 아파트로 이사를 합니다. 오랫동안 꿈꿔 오던 아파트입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요, 쌍둥이 아들들도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이 바로 옆집의, 바로 위아래 집의 술한 사람들의 삶하고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비슷한 걸 욕망하는 것 같고 다들 비슷한 형태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감염의 속도가 아파트에서는 놀랍습니다. 그런 거죠. 옆집에서 어떻게 생긴 커튼을 했다. "그 커튼이 예쁘대.", 유행이 짝 번집니다. "어떤 걸 먹는데. 요즘은 그게 유행이라더라.", 유행이 짝 번집니다. 약간 문제적인 인물이었는지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점점 그런 상황에 진저리를 칩니다. "이 닭은 방들이 끔찍했다." 게다가 이 닭은 상황을 상징·비유하듯이 쌍둥이 아들마저 있잖아요. 아들들 이름도 자꾸 잘못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뭔지 아시겠지요? "한 눈을 애꾸를 만들어 가지고 콩알만 한 유리 조각을 통해 퇴근한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는 일", 이렇게 대문을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요, 아파트는. 보안경 같은 걸 통해서, 보안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바깥의 존재를. 그 일이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이런 식의 상황을 살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소설을 읽어 보면 아십니다. 박완서 소설로서는 다소 충격적인 결말을 보여 주고 있는 소설로도 유명한데요, 이 소설 결말을 읽으시면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불쾌하실지도 모르겠고, 그랬던 시절이 50년 전인 거죠. 50년을 건너뛰었습니다. 50년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말이죠. 계속되는 성장도 있었고, 87년에 이른바 민주화도 있었고, 98년 그때부터 있었던 이른바 IMF 상황, 국제 금융의 구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탈성장 내지는 저성장이라는 말이 문제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마 요즘 한국 젊은 세대에 물어보면 중요하게 관심 가진 문제 중의 하나가 기후 변화,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젠더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겠지만 말이죠. 기후 변화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국가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 단위의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달라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설이라는 건 아주 근본적으로 민족 국가 시대의 정치성과 공명하는 장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정치적으로는 민족 국가와 계급적으로는 부르주아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공명하는 장르가 소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소설이 근본적인 형태 변화를 겪어야 될 시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활동하고 있는 SF 작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간은 우주죠, 우리가 이런 공간을 살아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있을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두 개의 태양, 열 개의 달, 남성과 여성의 젠더를 넘어선 제3의 젠더, 우주에서는 뭐든지 가능할지 모릅니다. 미래를 배경으로 해서는 어떤 상상이든 가능할지 모릅니다. SF라는 게 바로 그런 장르죠, 미래를 상상함으로써 현재를 달리 보게 만드는 식의 장르. 그리고 SF 속에서는 젠더나 계급이나 국가나 이런 문제들이 현저하게 부차화됩니다. 겹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그야말로 인간중으로서, 호모 사피엔스로서 세계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 SF의 세계죠. 최근에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부상하고 있는 소설들은 SF 장르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김초엽이라는 작가가 아마 제일 널리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가가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과학 기술학 쪽을 전공하기도 했고요. 포항에 있는 포스텍이라는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기도 하네요, 1993년생. 김초엽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런 소설들을 썼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방금 떠난 세계』, 이 두 종류는 소설집이고요. 『지구 끝의 온실』은 최근에 나온 장편 소설입니다. 『지구 끝의 온실』, 무슨 얘기일까 싶죠. 영상화가 확정됐다니까 이거 곧 영화로도 볼 수 있으려나요? 지구의 소멸, 거의 소멸로 갔던 지구가 되살아났는데요. 그 중요한 고비에 지구 끝의 온실이라고 할 만한 어떤 사건, 존재가 있었던 거죠. 그걸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단편집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보여 드리는 방식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에 나오는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소설의 일부입니다. 이 순례자들은 다른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커뮤니티에서 해마다 일정 나이에 이른 몇십 명씩을 뽑아서 순례자로 지구에 보냅니다. 이제 지구가 외계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곳은 정말 고요하고 평온한 곳입니다. 갈등도 없고 소리 높여 싸우는 사람들도 없고 크게 말하자면 그 소지가 될 만한 젠더나 계급이나 지역의 엄격한 구분 자체가 드러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소설의 화자는 그중에서도 그래도 자기와 가까웠던 누군가가 순례를 떠났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돌아오지 않는 사연에 대한 해명인 셈인데요. 지구는 고통스러운 곳이죠. 이곳은 유토피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순례자들이 지구에 남기로 선택하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론 순례자들 전체에 비하면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만 저 지구는 여기에 있는 이 커뮤니티의 오리진이지만 타락한 곳, 이미 낡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새로운 세계라면 저쪽은 구세계인 셈이죠. 그런데 그곳에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만큼 사랑도 있다. 이런 게 이 소설의 거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약하고 나니까 작가에게 매우 미안하기는 한데요. 원래 소설이란 원문을 읽어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지구와 외계의 유토피아, 이런 한국 소설에서 보지 못하던 공간이네

요, 「최후의 라이오니」라는 단편을 볼까요? 여기에서 지구는 아예 배경에서 사라집니다. 두 개의 외계 행성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행성은 이 화자가 출발한 행성이고요, 또 하나의 행성은 화자의 행성에서 3420ED라고 이름 붙인 행성입니다. 점점 사연을 알아 가면서 드러나는 3420ED의 역사는 불멸자들의 도시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 불멸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는데, 여기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탈출을 합니다. 딱 한 명이 남아서 이 지역에 아직 남아 있는 비인간 존재,

그러니까 로봇, 기계, 이런 존재들을 돌보는 역할을 자임합니다. 이런 두 개의 사연이 엮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오면 지구와 외계뿐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거리도 흐릿해져 있습니다. 또는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요즘 우리는 인공 지능과 가까이 사귀고 살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여러모로 달라진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공 지능하고 수다 떨지 않으셨어요? 저도 조금 떨었습니다. 그림도 그려 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공존해 나갈지 모르죠, 인간끼리 혹은 인간 너머의 생물종과 혹은 생물 너머의 다른 존재들과. 한국 현대 소설은 오랫동안 한국의 시공간, 한반도라는 지역 속에서 거주해 왔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 다른 지역에 대한 연대, 이런 걸 놓치지 않았습니니다. 지금은 또 새로운 시기이니만큼 한국 소설의 모습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할 것이듯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게 될는지 기대가 됩니다.

【참고문헌】

- 송은영, 『서울 탄생기』, 푸른역사, 2018.
- 이경호·권명아 엮음,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세계사, 2000.
- 심완선, 『SF와 함께라면 어디든』, 학교도서관저널, 2023.
- 양윤의, 「나는 이 다름이 마음에 들어」, 『문학과 사회』 35(1), 문학과지성사, 2022.2.

Lecture

1차시 한반도의 근대와 식민지 경험

Hello, my name is Kwon Boduerae and I study and teach at Korea University in South Korea.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time-space"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n particular, the focus will be on the writers Yi In-jik and Yi Ki-yŏng.

I titled this lecture as "Time-space of modern Korean literature," but actually, this title is not that simple. This i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name "Korea" itself. If you think "Korea" is the same word as "Han'guk," it would not be a problem. The name "Korea" is said to have originated from foreigners' pronunciation of the country name "Koryŏ," that was the name of a country that existed 700, 800, or even more years ago.

However, strictly speaking, the name "Han'guk" is an abbrev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was a country that emerg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8 and continues to exist to this day, and I'm a citizen of that nation. In this class, when we refer to "Korea," we are not only referring to the Republic of Korea but also to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before its establishment. I hope that you can keep that in mind.

For example, we will begin our discussion from the period of Chosŏn or the Great Han Empire. Chosŏn was founded in the late 14th century, in 1392. During its last period, it was also known as the Great Han Empire. The Great Han Empire. There was a time when an empire existed o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a brief period of just over ten years. However, the Chosŏn dynasty from before was part of a certain system. We can call it the Sinocentric system. It was centered around China, which still exists as a country in East Asia. For example, the Korean Peninsula, Japan, Vietnam, and

other regions were all part of this system. They shared a writing system, a calendar, and a similar system of governance. Above all, they lived as part of that system, sending formal greetings to China at the end and beginning of the year. Since this is a somewhat complicated story, those who are more curious can learn more about it, in another occasion. However, when a new name was coined for the country of Korea, that is the Great Han Empire, people entered into a different world from the one they had been living in. This period is often referred to as the "kaehang" or "Open Ports Period". The Korean term "kaehang" means literally "to open a port." It means that the Korean Peninsula had been conducting trade with other regions within a very limited range, and then entered a stage in which it traded with various countries in the world. The first event that initiated this was the Kanghai Treaty of 1876, a treaty signed with Japan. After that, Korea also made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experiencing changes like this, and gradually moving away from a world that believed China to be its center. Of course, prior to this time, there must have been a hunch among Korean people that "we are people who liv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are a distinct group." Relatively early, a unique language developed, and a unique writing system had already been used since the 15th century. However, the awareness that "we are people who live within one country. Tha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seems to have become common after the opening of the country. Around this time, issues such as "how can we make Chosŏn or the Great Han Empire stronger?" "How can we stand as one of the members of the world?" and "how can we live as a member of Chosŏn or of the Great Han Empire?" began to arise.

I have chosen Yi In-jik as a representative author of this period. Yi In-jik is known above all as a writer of new fiction or "sin sosŏl". When we say "sin sosŏl (new fiction)," it literally means "new novels."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various new literary attempts were emerging in the late Chosŏn period. So at the time, people who wrote novels were strongly aware that the "novel" was a new genre. Therefore, Yi In-jik is generally known as the first author to create such new fiction. He also played an active role as a journalist, as modern newspapers began to emerge around

this time. Prior to that, the newspaper culture had not developed much on the peninsula. In fact, the idea of everyone knowing important news was seen as somewhat unsettling. There are even some records saying that during the Chosŏn period, people who created and distributed anything similar to a newspaper were even executed. This suggests that the modern and contemporary eras we live in now are quite different from the past.

Yi In-jik is also famous for his collaboration with the Japanese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occupation, which is a highly controversial topic in Korea. Collaborating with the Japanese is often understood as taking Japan's side, betraying one's own people, and selling out one's country. As it is a complex issue and one that is still difficult to discuss today, I will only touch on this topic briefly. I mention Yi In-jik's collaboration with the Japanese because it is recorded that he was involved in practical work when the Korean peninsula was annexed by Japan. His novels may also have problematic aspects, and in fact, some of his works do contain such elements.

Let's take a closer look at one of his novels, <Hyŏl ŭi nu (Tears of Blood)>, which is considered the first "new fiction". The title means 'tears of blood,' maybe hinting at a time when there were many reasons to shed tears of blood. This novel was published in 1906, more than a century and over ten years ago. Its setting, however, is a bit earlier, from 1894 to 1902. 1894 was a very complex year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at time, there was a large-scale popular uprising called the Tonghak Peasant Movement. Chinese troops were deployed to help suppress it, and there were complicated international treaties involving this dispatch of Chinese troops. Consequently, Japan dispatched troops under the pretext of assisting in the suppression as Chinese troops had been already dispatched. Ultimately, China and Japan engaged in a direct confrontation during this period, which is known as the First Sino-Japanese War.

The novel <Tears of Blood>, or <Hyŏl ŭi nu>, is set against the backdrop of this war. The novel's spatial background is Pyongyang in the middle of the First Sino-Japanese War. The war took place in Pyongyang, now capital of North Korea. The novel revolves around a young girl who lived in this city,

lost her parents during the war, and how she grows up in the aftermath. This is the basic plot of the novel. This protagonist's name is Kim Ok-ryŏn, and she is from a commoner background, perhaps unsurprisingly. This novel is different from previous works, where the focus was on the lives of noble families. In the novels around this time, ordinary people are becoming more important. Ok-ryŏn lost her parents during the war, or more precisely, was separated from them. It must've been difficult for a young girl to lose her parents during the war. However, Ok-ryŏn managed to get help from a Japanese military officer and crossed over to Japan for education. Later, she even went to the United States for education. If we trace the path that Ok-ryŏn took, it would look something like this. It doesn't look very clear, right? Here, you can see the Korean Peninsula above. Ok-ryŏn crossed from Pyongyang on the Korean Peninsula to Osaka in Japan, where she received her education. However, some issues arose, such as her adoptive mother no longer showing affection for her. Because of this, she boarded a ship to San Francisco, but did not stay there. Instead, she continued her journey to Washington D.C.,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where she received her education. Actually, scenes of Ok-ryŏn's life in the United States are not emphasized in the novel. In fact, they are only briefly mentioned and do not take up many pages. The main focus of the story is on her experiences during the war in Pyongyang, her education in Japan, and her struggles with her stepmother. So, in a way, <Tears of Blood> can be seen as an exploration of a very unfamiliar space for the Koreans of that time. Moreover, as a young girl traveling through Japan to the United States, Ok-ryŏn's experiences would have been even more challenging. Yi In-jik may have been quite familiar with Japan. He had experience studying abroad and working as a journalist there. However, he may not have been as knowledgeable about the United States. Furthermore, even familiar spaces such as Japan may have been very unfamiliar for Koreans at that time.

In the novel, as Ok-ryŏn travels through Japan, Yi In-jik writes as follows: "Everything was new to Ok-ryŏn's eyes. At the port, three masts of a ship rose high like trees, and on the street, two or three-story houses looked like they were floating in the clouds. The train moved like a

centipede, spewing smoke from its mouth, while the ship rolled and swayed as if in a storm."

From our perspective, it is difficult to imagine her experience of everything for the first time. There are descriptions of the port, the sight of ships packed tightly, the busy developed market, and the view of two- or three-story houses are described. When seeing a train, a steamship, or a trolley for the first time, how should one understand them? We try to make sense of those while recollecting what we already knew in relation to those things. For example, describing the train as "moving like a centipede" and the sound of the ship as "the thundering of a storm." That is to say that it is described in a way that is similar to when thunder strikes and an earthquake occurs. Kim Ok-ryŏn might have approache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ith an attitude of both intimidation and curiosity.

An important location for <Tears of Blood> is the space of the school. In particular, school spaces in Japan are crucially important in the novel. It must have been similar to this. As in, the scenery of Japanese girls' schools during the Meiji era, which is the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was somewhat similar to this. It is said that Kim Ok-ryŏn attended this type of school, and it is mentioned that she pursued her education even after moving to the United States. However, maybe because it was difficult for Yi In-jik to experience and understand the United States? The scenery of American classrooms or urban areas is not depicted in detail. After completing her education, what did Ok-ryŏn become? <Tears of Blood> does not develop long enough to show what kind of life Ok-ryŏn lived. However, we can roughly infer from the last scene. Ok-ryŏn promises to get married to a young man who crossed over to the United States with her. They probably had a modern wedding like this, and they certainly had ambitions and aspirations to change the country and live as elites in society.

I'm not sure if this wedding looks like a modern wedding, but this photo was taken in the 1910s. In the era when Ok-ryŏn would have likely been married, the early 1900s, wedding dresses had not yet appeared on the Korean peninsula, so this would have been considered a fairly modern

ceremony. It looks like there were two pairs of newlyweds, and the composition of the picture, in which men and women daringly pose one next to the other is also interesting. Who knows, maybe the man in <Tears of Blood> wore his tailcoat instead of a "hanbok". In the novel, the couple made a pledge, "We will make our country prosperous in the future. We get married with that thought in mind," and then disappeared from the story, ending it without conclusion. The sequel was not properly completed.

Through the novel <Tears of Blood>, we caught a brief glimpse of the landscape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00s. At that time, the world was expanding rapidly, but most of Koreans had little knowledge about it. Their program to make Korea prosperous was lacking in specificity. Therefore, the narrative in the novel is somewhat speculative in such context.

The aspirations of Ok-ryŏn and Ku Wan-sŏ may have been different from what actually happened in history. This is what Ku Wan-sŏ says "We will combine Japan and Chosŏn to create a large country and make our country strong." So, what Ku Wan-sŏ envisioned was not limited to just the Korean peninsula. Positively speaking, we could think of it as something similar to the current EU or EC. A kind of union, and in some cases, it could even become a federation. It is unclear if this was a possibility or if it was just a mere 1% or 0.1% chance of it happening, but, in fact, what actually happened in 1910 was announced under the name of "happang" or "annexation". However, in reality, it was colonization. Here, the term "merger ("pyŏnghap")" is used. This is a print that was produced to commemorate the so-called "merger". In the center, the Meiji Emperor is visible, with King Kojong on the right and King Sunjong on the left, and so on.

After colonization, the Korean Peninsula experienced the dual trajectories of modernization and colonization. Even modernization alone was probably not an easy task.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modernization and colonization, and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two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for the first time, the class system was abolished and capitalism was introduced. Even without colonization, this changing world would have been difficult. The

factor of colonization made it much more difficult.

This photo is from th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which was the equivalent of the British East India Company. It was a company mainly tasked with pioneering colonization. Colonization literally involves moving people somewhere else. They made it possible for people who lived in Japan to actually live in Korea. To do so, they would modify Korea for convenience and move or plunder various resou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mong other changes.

We can't use simple terms when talking about the March First Movement. It was a large-scale popular uprising movement that took place in 1919. Although difficult to describe in detail, this movement lasted for about two months and resulted in many sacrifices. The number of deaths alone is estimated to be over 1,000. This estimate is not approximate, but rather a precise number. This process firmly established the national consciousness and the anti-Japanese sentiment of the Korean people. They rose up throughout the country demanding independence and liberation, and in the end, it resulted in the deaths of more than 1,000 people and the imprisonment of tens of thousands.

Meanwhile, people like these female students seen below, who received new education, also showed their presence. These people paved the way for a new culture to emerge. These people are writers like Yi Kwang-su, Kim Tong-in, and Yŏm Sang-sŏp. These writers are crucial to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which flourished after the March First Movement. However, today we will skip over these writers and look at Yi Ki-yŏng.

Yi Ki-yŏng is famous for being a writer who focused on the realities of workers and peasants. He can be considered one of the representative writers of proletarian literature during the colonial era. After 1920, not long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the wave of socialism became very strong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ocialism, which address class issues, many people began to believe that national liberation could also be achieved. One of the most important representatives of those people was Yi Ki-yŏng. He

wrote such novels and later continued to work in North Korea after the division, until passing away in the 1980s. This could be a good topic for another occasion. Through Yi Ki-yŏng, we can think about these issues.

Earlier, we've seen the photo of th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right? Through such organizations, the plundering of the Korean Peninsula started in full swing. This has many implications. First, there were a situation that could be called the plundering of publicly owned land, or common land, also called commons. Before modern times, property ownership, including land ownership, was different from what we know today. Before that, exclusive ownership was not highly developed, and, for example, when it came to farmland, there was not only the landowner's ownership but also the state's absolute ownership, and the people who lived and worked on the land had ownership rights to a certain extent. It was a complex system. However, this situation became a problem when the land survey projects launched in the 1910s. Through these colonial projects, the traditional land ownership system was transformed into a modern one. However, as a result, we now know that many farmers became even more impoverished and marginalized from their land compared to the past. For example, the percentage of sharecroppers reached nearly 80% of all farmers, and there are records of them paying a much higher rent than the 50% standard. The 50% rent alone seems terrifying, as it meant giving up half of one's crop yield after a year of hard work. To put it in a more relatable context, it was like working hard for a month and having to pay half of the income as rent, but the situation was much more difficult than that.

Yi Ki-yŏng's novel, "Hometown," published between 1933 and 1934, deals well with this situation. The main characters in the novel are one man and one woman. The person shown here is the female protagonist named 'Kap-suk', and the person shown here is the male protagonist named 'Kim Hŭi-jun'. Kap-suk is the daughter of a landlord, while Kim Hŭi-jun is a farmer's son. At first, his family could make a living, but as Kim Hŭi-jun went abroad to study, the family's living conditions became increasingly difficult. Eventually, the two characters meet again in an unexpected situation where their roles have reversed. Kim Hŭi-jun, the son of a farmer, takes on

the role of a socialist leader. To be precise, Kap-suk is not the daughter of a landlord but the daughter of a manager called "marŭm" who manages the land on behalf of the landlord. The female character Kap-suk, who is the daughter of a "marŭm" undergoes a transformation under the guidance of Hŭi-jun, becoming a new person. This is the central theme of the story. However, when summarizing the entire story based on these two characters, the scenes that depict the other farmers are not properly explained.

One of these scenes is the "ture" scene. The "ture" is an old Korean custom where people work together. Similar customs may exist in other regions. The farmers' appearance is depicted in this scene as they start by weeding the "marŭm"'s fields. This means removing weeds and performing other related tasks. They wear towels on their heads and carry hoes. Can you picture what they look like?

This phrase describes "with their calves exposed and the muscles bulging like the stomach of a snake that has eaten a frog." It portrays the appearance of the legs of the farmers while working in the fields, with their legs bulging like "the stomach of a snake that has eaten a frog." This describes a body that has been trained through labor, and such bodies are an important part of this novel <Hometown>. The story also depicts how these people resist against the landlords and the "marŭm"s and it also includes simple tales of their victories. Today we've roughly examined the life of the farmers and the spatio-temporal aspects of the Korean literature within the context of the 1920s and 30s, a time when the farmers' lives and their struggles against sharecropping were crucial.

2차시 식민지 모더니즘과 도시 공간

Hello. Today, we will examine writers of colonial modernism in Korea under the topic of "The Space-Time of Modern Korean Novels." In particular, we will focus on three writers: Yi Hyo-sŏk, Pak T'ae-wŏn, and Yi T'ae-jun.

Speaking of colonial modernism, this refers to the period when the Korean Peninsula was under Japanese rule from 1910 to 1945. However, the colonial period has left many complex issues that are still debated today. Some of these issues are probably familiar to all of you. One fundamental issue that continues to be debated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olonial exploitation and moderniz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for example, the Korean Peninsula experienced development in areas such as overall production, railways, roads, urbanization, and the growth of factories. We cannot deeply delve into these complex issues. Instead, we will figure out how modernization continued to progress under the conditions of colonialism.

One significant aspect of modernization is urbaniz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city known today as Seoul was called Kyŏngsŏng or Keijō, and it was at the center of urbanization. From this city, we see emerging trends and writers that could be considered modernist or associated with colonial modernism. If you were to ask "What is modernism?", that would be too complex of an issue to discuss here. I'll try to explain it this way. The term Modernism refers to the literary and artistic tendencies that emerged in Europe from the late 19th century, especially around the time of World War I. This includes fascination with modern civilization and a strong skepticism toward it at the same time. It differed greatly from the easy novels and poems we typically associate with literature, artistically as well as in form.

The first author we will examine is Yi Hyo-sŏk. He was born in 1907 and passed away in 1942, in his mid-thirties. I am much older than Yi Hyo-sŏk now. He was born in P'yŏngch'ang, Kangwŏn Province. Have you ever been

to Kangwŏn Province in Korea? Usually, when people think of Kangwŏn Province, they associate it with the sea, mountains, vacations, and such. But it's not that simple. After coming to Seoul from there, Yi Hyo-sŏk studied at university and became sympathetic to socialist ideas. With this empathy, he began his career as a fellow traveler writer. Fellow Travelers were writers who did not directly participate in or join socialist organizations but worked with similar themes. However, in the early 1930s, he shifted his focus from socialist themes to an aestheticism that could be described as trend of aesthetic movement or aestheticism. While these concepts have similar connotations, I hope you can roughly understand what they mean.

If you were to ask Koreans about the name Yi Hyo-sŏk, they would likely answer, "Ah! The writer of 'When the Buckwheat Blooms'!" This is a very famous work, but I won't go into detail about it. Shall I just mention the first line? In this novel, the author describes the field of buckwheat flowers as "serene, as if white salt had been sprinkled over it."

It's a description that is not at all ordinary, and it's what made the novel famous above all else. The story itself could be summarized as "the search for an old love of an itinerant vendor."

Today, I want to take a closer look at Yi Hyo-sŏk's first collection of short stories, <Noryŏng Kŭnhae>. "Noryŏng" means "Russian territory," so the title means "the sea near the Russian territory." It's difficult to directly connect these short stories or collections to urbanization or modernism. However, as I mentioned earlier, Yi Hyo-sŏk started out as a Fellow Traveler writer, and his works demonstrate a strong socialist tone. Nevertheless, his works also show an interest in urban culture. On the other hand, one can also see a pursuit of cosmopolitanism that transcends national and regional boundaries under the pretext of socialism. Since this also has a strong connection to modernism, we will take a closer look at it. Vladivostok, called "Haesamwi" in Korea at that time, is where the story takes place. Specifically, I will examine the short story "Pukguk Sasin" in "Noryŏng Kŭnhae".

"Pukguk Sasin" means "a private letter sent from the northern country," and

it is written in the format of a letter sent to a friend. The setting of the story is Vladivostok, near the northern Russian territory, where a young Korean man shares various observations. However, the important event in the story is when he meets a Russian woman named Sasha at a café. So it's a bit strange. The pretext is socialism, the backdrop is Russia, and it's set in Vladivostok. "Look at the lively scenery of a country that has just embraced socialism," that's the pretext. But what takes up about two-thirds of the novel is description of how attractive this woman Sasha is, how the narrator I ended up winning the kiss auction she hosted, and how I came to glory. Before we see the part about "the kiss auction", let's talk about who Sasha is. You'll see a strange mixture of socialism and aestheticism. Sasha is a person who plays the guitar in a cafe at night and works as a female clerk for a maritime security agency during the day. When she was in Moscow, she also played the role of a revolutionary as a passionate member of the Komsomol. Is it important that she is a revolutionary, or is it important that she comes out to the café at night and displays such a fascinating appearance? I mentioned "the kiss auction" earlier. Here, for no particular reason and very suddenly a competition begins, where one person offers more money than the last for the honor of receiving Sasha's kiss. And "I," who was already attracted to Sasha, participates in the auction and ends up paying an absurd amount of money to get her kiss. "I" bid 1,000 rubles. It's probably not more than 10 million won. But in the end, they confirmed their love for each other. It's a somewhat romantic but very abstract story. I think this demonstrates how Korean contemporary novels were expanding their scope in this way.

Shall we now take a look at another writer, Pak T'ae-wŏn? We have been talking about Yi Hyo-sŏk and Yi T'ae-jun, along with him, today. There is a reason why we are grouping them together. All three of them participated in an organization called the "Kuinhoe (Group of Nine)". If we look at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for about ten years, socialist literature played a central role in Korean literature. However, as entered the 1930s, Japanese imperialist aggression accelerated, and oppression of socialism intensified, while other literary trends began to

emerge. One can view this positively or negatively, right? After the previously mainstream social literature disappeared, there emerged a literature that had originally been without rights or voices. One can also see this as the flowering of various desires that had existed. The writer we saw earlier, Yi Hyo-sŏk, and the writer Pak T'ae-wŏn are part of this new trend. Pak T'ae-wŏn later defected to North Korea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North Korean literature. But that is a different story, so let's move on here.

These are the members of "Kuinhoe (Group of Nine)" and we can see Yi Sang as well. On the right, we can see the institution's journal called <Si wa Sosŏl>. Please take a look at it briefly as reference.

As I mentioned earlier, urbanization progressed along with modernization and colonization. To what extent was this the case? This photo does not quite match the timeline. It is probably from the 1950s. However, if we consider that this building already exist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we can get a good perspective. This is the Mitsukoshi Department Store, which opened its doors in Seoul in 1930. It still remains as Shinsegae Department Store today. If you come to Seoul, you will be able to pass by Shinsegae Department Store. Despite various challenges, this building has survived and one can think "Ah, this is the building from 1930." Department stores and wider roads were built, cars and cafes appeared, and people with modern education in various field, that filled the space. However, the term "metropolis" had a very limited meaning.

Let's compare the sizes of various metropolises in the 1930s. This is statistics of the early 1930s. Seoul had a population of 700,000 at that time, while Tokyo had 5.5 million and London had 8 million. By the late 1930s, the region of Seoul had expanded to surpass 1 million people. Expanding the region meant, this kind of measurements often occur, that administrative measures to widen the boundaries of the city, which occurred in Seoul in the 1930s. However, a population of nearly 1 million was not a small number. Even now, cities with populations of 1 million are not common. However, the city of Seoul showed a somewhat complex development pattern. Depending on the area, there were dual cities with more Japanese in the south and more

Koreans in the north. Although there were department stores like the one that you have seen earlier, overall there were many single-story buildings and a monotonous cityscape. You can see some Western-style houses. Shall we take a closer look at one building? This is a building that can still be seen today. It was the Bank of Chosŏn at the time, and it is now the Bank of Korea.

Of the novels written by Pak T'ae-wŏn, let's first take a closer look at <A Day in the Life of Novelist Kubo>. It's a story about a novelist named Kubo, to better say it, nicknamed Kubo, spending a day in Seoul. It's a kind of novel that could still be written today. Kubo, a novelist with no fixed job, had a day with no specific plans, so he strolls around town. He goes to this or that teahouse, rides on a streetcar, wanders the streets, and visits this and that store, including a department store. It's the kind of novel that could only exist in a city. The term "urban flaneur" is famous in Europe, and it could be said that the novel shows this side of the character. What was the café scene like in the early 1930s? Shall we take a look? It's 2 p.m. at a teahouse. What about 2 p.m. in Seoul these days? There will be some people with no job, sitting there drinking tea, smoking cigarettes, listening to music, mostly young people. However, these are young people who already seem tired of life. Some of them may be able to show an energetic appearance, well dressed and with vitality, but for some reason, Seoul's cafes, or Kyŏngsŏng's cafes at that time, seemed to be the domain of the defeated. Is this a somewhat complicated picture or a common one that can be seen today?

Through the novel <A Day in the Life of Novelist Kubo>, we can see the city's downtown area and cafes. In contrast, the landscape depicted by Pak T'ae-wŏn in the novel <Ch'ŏnbyŏn p'unggyŏng (Scenes by a Stream)> is quite different. The novel is set on the area around to the present-day Ch'ŏnggyech'ŏn, which was also called Ch'ŏnggyech'ŏn at that time. It is a series of lengthy works depicting the scenery around Ch'ŏnggyech'ŏn, organized so that character A and then B appear one after the other. The first scene starts right here at this Ch'ŏnggyech'ŏn laundry site. Compared to its present appearance, it is starkly different as almost 100 years have

passed. The city shown here is inevitably different from the city in which the novelist wandered around cafes. While the area is located in the city, many aspects of it may appear more like rural communities to us nowadays. We have just had a brief overview of novels set in Seoul during the 1930s.

Let's briefly look at Pyongyang since we cannot only focus on Seoul. This is through the novelist Yi T'ae-jun. Yi T'ae-jun had a complex life, as one would expect from anyone's life. He grew up almost as an orphan and mainly lived in Seoul, although he was originally from the Ch'ŏrwŏn area of Kangwŏn Province. However, he wrote one novel set in Pyongyang. As you might know, Pyongyang is in North Korean territory today. Let's take a brief look at Yi T'ae-jun's novel, <P'aegangnaeng>, in which "P'aegang" refers to the Taedong River, which flows through Pyongyang. It can be inferred that the novel is about Pyongyang. The novel was published in 1938. However, the appearance of Pyongyang shown her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one shown by Yi Hyo-sŏk in Vladivostok or Pak T'ae-wŏn in Seoul. It means that it is not the appearance of a modern city. Could it be because Pyongyang was a less developed city? Not necessarily. Of course, it was less developed than Seoul, but it was also an area that was more enthusiastic about modernization than any other region. It was an area that quickly acquired the characteristics of a modern city. However, Yi T'ae-jun does not try to capture this aspect. The Pyongyang he sees is a city full of nostalgia, illuminated by his nostalgic gaze.

Shall we take an example? This is a story about "Pubyŏkru," a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al style. It is a building with only a roof and no walls, usually built to enjoy the scenery. It is a place that has deteriorated as time passed, with only old frames hanging, without any bird visiting i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the old wooden pillars from the Chosŏn period and these wooden decorations and a feeling of honest purity emanating from them. This Pyongyang seems to have nothing to do with the modern Pyongyang or even the Pyongyang of 1938. Yi T'ae-jun talks about why "Korean nature looks so sad" while showing this kind of Pyongyang.

What you can see is the view of Pubyŏkru. On the right side is the current

view of Pubyŏkru. You can also see Pyongyang people doing morning exercises. Why did Yi T'ae-jun show a slightly different sense than modernity in 1938 in his novel <P'aegangnaeng>? Yi T'ae-jun was one of the members of the Kuinhoe, with a somewhat retro orientation, one could say. He was a writer who strongly expressed nostalgia for disappearing things. For instance, books and old oriental landscapes that were disappearing, or something like orchids and old collections. He had a particular love for various antiques from the Chosŏn period. Therefore, even as he wrote very stylistic sentences as a modernist living in modern cities, Yi T'ae-jun did not turn a blind eye to disappearing things. The era in which <P'aegangnaeng> is set is a time when the value of what is disappearing was significant in many respects.

It was such a time that three characters appear in the novel. The writer, "Hyŏn," is the speaker, and there is a teacher named "Pak," as well as a businessman named "Kim," who is a successful entrepreneur. On the other hand, "Pak" is a teacher who teaches Korean, but it's 1938, and the hours of Korean teaching were diminishing. Half of the teaching hours are gone, and he will soon be expelled from school. In fact, Hyŏn, the novelist, ran to Pyongyang after receiving this letter. At the end of <Paegangraeng>, there is a quote from the ancient Eastern book <Chu yŏk>. It roughly translates to "When you step on the frost, think that it will be hard ice." It means "It's not yet cold. Colder and harsher days will come." Modernists also had to give up the short-lived freedom of style, and a time when it would become difficult to create in Korean and han'gŭl was fast approaching. As a result, the writers seen earlier eventually had to start writing in Japanese as well. Yi Hyo-sŏk, Pak T'ae-wŏn, and Yi T'ae-jun also found it challenging to avoid this fate. And then, a new era would come.

3차시 해방 전후 : 트랜스내셔널의 경험

When we think about the 1930s and 40s, our feelings are complicated. Perhaps most people will be think of World War II. Fortunately, nowadays we haven't seen such large-scale disasters. The Second World Wa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 all know.

Starting from an area called Manchuria in 1931, Japan began a war of invasion across the Chinese mainland in 1937. Meanwhile, control over the Korean Peninsula became much stricter. It was all part of a much larger plan for Japan's expansion of its empire. There were many changes. On the left is a picture of something not from the Korean Peninsula, but from Taiwan. Mandatory use of the Japanese language was forced in Japan's colonies. Japanese had to be used in school and at home. On the right is a scene of training volunteer soldiers. They initially recruited colonial youth from places like Taiwan and Chosŏn to be volunteer soldiers, but later they were conscripted. Young men and women were also forcibly conscripted for labor or for sexual slavery with the euphemism of "comfort women."

It was a difficult situation, but there were several changes that occurred during this period. Today, we will look at two writers who worked during the period of colonization, the war, and division. As for the writers from the end of colonial period, I would like to introduce Kim Sa-ryang, and for writers who dealt with issues of liberation, division, and war, we're going to examine Ch'oe In-hun.

Kim Sa-ryang is a writer who is famous for actively writing in Japanese. As you saw earlier, in any region, the use of Japanese as the national language and writing in it became mandatory, and in such a situation, the influence of Japanese could only increase over time in the everyday life of Koreans. This tendency was clear in the daily lives of Koreans. Meanwhile, writers who mainly wrote in Japanese and were recognized in Japanese literary circles began to emerge. Kim Sa-ryang is one of them. If someone

wrote in Japanese at that time, it is easy to assume that individual had a pro-Japanese attitude, but the case of Kim Sa-ryang is much more complicated. Shortly before liberation, in early 1945, he went to China and escaped from the influence of Japan. Then, he even showed enthusiasm for joining a unit called the Korean Volunteer Corps, which strove for Korea's independence.

However, the issue of writing in Japanese was a somewhat different problem from political involvement. When we think about it, which one is more necessary? It is a matter of either persisting to write in Korean or, spreading information about the issues of Korea in Japanese, or pushing forward the idea of resistance, even in Japanese.

Kim Sa-ryang's novel, <Into the Light>, is a novel centered around a boy named Yamada Haruo. Yamada Haruo is introduced in this way: "He was a strange child. He always kept to himself, watching the other kids from a safe distance." He was bullied, but at the same time, he bullied children younger than himself. He also had a gloomy appearance. Although he was a child, he had little hair, was too tall, had slightly glassy, with a predominant sclera. This child is actually of mixed Japanese and Chosŏn heritage, and therefore faces a strong identity problem. The plot of the novel revolves around how he can solve his own problem. This is the general summary of the novel. The narrator of this novel is a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Tokyo who is involved in some sort of volunteering. Although he is from Chosŏn himself, he is also someone who lives and is treated like a Japanese person. So, the setting of this novel is naturally Japan. Although writers like Kim Sa-ryang did not always set their novels in Japan, there are also important works set there. Among the Japanese regions, it is the Oshiage area on the outskirts of Tokyo. This is typical of the outskirts of major cities. There are also such areas in Osaka, such as Ikaino. Oshiage, in the vicinity of Tokyo, was also a place where many Chosŏn people lived, and was famous for being an area where poor people lived with factories were nearby. It seems that this area was famous for such things. This novel depicts the encounter between a university student from Chosŏn who went on volunteering in this area and a half-Japanese, half-Chosŏn boy who was also a troublemaker from this area

That's what <Into the Light> is about. I hope you can keep this in mind.

As you might have noticed, I am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titles <In the Light> and <Into the Light> I must emphasize again that "In the Light" was not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Once again,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it was written in Japanese. The title in Japanese is "光の中に (hikari no nakani)" and can be translated as <Into the Light> or <In the Light>. Is it <In the Light>, or is it <Into the Light>, directed towards the light? In the last part of the novel, the protagonist, Yamada Haruo, is taken by the narrator, Mr. Nam (in Japanese, Mr. Minami), to a department store and a park in downtown Tokyo. I brought in a description of that scene. You can see Matsuya Department Store on the left and the landscape of Ueno Park on the right.

What is a Korean novel? Is it a novel set in Korea? Written in Korean? Dealing with Korean issues? Written by Koreans? Various approaches are possible. While falling under the category of Korean novels, there are many works that show attempts at variety. In the case of <Into the Light>, it is set outside of Korea and written in a language other than Korean, yet it is still discussed within the framework of Korean literature.

Among the various topics, the existence of Zainichi (Korean residents in Japan) is worth thinking about again today. Zainichi are somewhat different from Yamada Haruo in <Into the Light>. Yamada Haruo was a mixed-race child. Zainichi refers to people who crossed over from Korea to Japan during the colonial era but are living permanently in Japan. They have already entered the third generation. Will there be a fourth generation? Yes, there will be. When thinking of such people, I believe <Into the Light> is a novel worth remembering. Recently, a novel called <Pachinko> has also become famous, highlighting the existence of Zainichi. There have always been people who can be considered as existing between nations, and we are becoming gradually unable to stay within one nation. That is the final thought I would like to add.

Shall we skip ahead and talk about the author Ch'oe In-hun? It is not easy to find common aspects between Ch'oe In-hun and Kim Sa-ryang, the author

we have discussed, but they were both from North Korea. Kim Sa-ryang was from P'yŏngan Province. Ch'oe In-hun is from the right-hand side of North Korea, in Hamgyŏng Province. During the Korean War, he fled to the South and has lived there ever since. Ch'oe In-hun's <The Square> is a widely renown novel among Koreans, se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Korean War and published in 1960. What comes to mind when you hear "Korean War"? I first think of refugees and the suffering of the people. The image of the photo on the left may come to mind, or perhaps the thought of bombings. There were many bombings during the war, and recent studies have explored this topic. So,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about it, you may refer to them. Ch'oe In-hun also deals with the theme of bombings in various forms in his novels. However, <The Square> is not a novel that directly focuses on the war's frontlines. This means that the center of <The Square> is not the scenes of refugees or the horrors of bombings that were commonplace during the Korean War. That's not the focus of <The Square>. And that might also be the secret to the popularity of the novel.

As mentioned earlier, <The Square> was published in 1960, almost ten years after the Korean War. During those ten years, a variety of novels were published, most of which focused on portraying the horrors of the war. This was probably inevitable. Moreover, from the perspective of many Koreans, the war seemed unjustifiable. Some may not think so. While some North Koreans may have anticipated a future in which the entire Korean peninsula became a socialist state, for most people, however, the war was akin to a senseless internal conflict. In the South, the government promoted a policy of northward expansion and reunification, but it was difficult for people to see clear ideological oppositions in their daily lives. The war was not between hostile nations but rather a situation in which their own families and friends were living in regions where the war was fought.

<The Square> tackles this issue by exploring the root cause of the war. In the 1950s, novels asked, "Why did this war happen in the first place? Why was this war so terrible?" "I don't know. I'm just overwhelmed by this war." If they responded this way, then <The Square> responded to this war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The focus of the response was on the issue of

prisoners of war. The issue of prisoners of war during the Korean War was not a simple one. In fact,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war was prolonged because of the prisoner of war issue. The war itself had become a stalemate within a year, and discussions on a ceasefire agreement had begun. But it was impossible to do so because there were many prisoners of war being held. This simple solution of just returning the prisoners of war to their home countries was no longer possible. In previous wars, when prisoners of war were captured, it was natural for them to be returned to their home countries or enslaved. But at this point in the war, complex issues of human rights and freedom began to influence how the war was viewed. This was the case all over the world, and the Korean War represented a very important and critical point. As a result, the war was prolonged because of questions like whether to just send the prisoners of war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or to respect each individual's will to choose where to go.

The novel <The Square> depicts a young man from South Korea who defected to the North, fought as a North Korean officer, and then became a prisoner of war, but refused to choose either North or South. This is unique. There were actually people who made this choice. It is recorded that there were 76 such people. Isn't that a small number considering the large number of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war? The image on the right shows Chinese troop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and later chose Taiwan, holding the flag of Taiwan and boarding a plane. This is a choice that can be thought of more easily, unlike choosing the North as a South Korean or the South as a North Korean.

However, <The Square> took a different path. This could also be the reason why <The Square> has kept its relevance for so long. It was first published in November 1960 in the format that can be seen on the left. Since then, it has been published several times as a standalone book, and the conten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It has been revised around ten times, making it a difficult task to determine which version to read. The protagonist of <The Square> is a young man named Yi Myŏng-jun. As mentioned earlier, he is from South Korea but chose to join North Korea. He wanted to

go to a neutral country, but did not make it. Instead he disappears. Most likely he committed suicide. At that time, the neutral country was India, at least in reality. India played a complex role in the Korean War, but should we skip that? Are you curious? India did 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Korean War, but provided medical support. Nehru, the prime minister of India at the time, was very concerned that the Korean War would escalate into a world war.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ere worried at that time. Therefore, in a sense, India's neutralit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fate of the prisoners of war. Here, we can see an Indian general, as well as prisoners of war who chose to go to a neutral country before leaving for India.

This scene is famous in <The Square>. It is depicted in a way where the North and South Korean officers ask, "Which way will you go?" In reality, history was different, but let's pass it as literary license. "I will go to a neutral country," the protagonist Yi Myŏng-jun says. Despite various persuasion attempts, he chooses to go to a neutral country. Korean literature faced a completely different space after liberation and through division and war. It faced a divided Korean peninsula, not the entire Korean peninsula. This is still an ongoing and insurmountable constraint. Before 1986, when most Koreans were prohibited from traveling abroad, it meant being completely closed off from the world. It was like being trapped in South Korea. In reality, it could be said that it was an island. <The Square> shows the paradoxical vast imagination of those trapped on this island. By doing so, it requests a reconsideration of the Korean War, which is the origin of this current trapped situation, and suggests a plan for a different history. In this regard, one can say that <The Square> is a novel that resonates with the April Revolution.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was very important. It was not only an event that ousted Rhee Syngman, who had been the president for over 10 years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but also a moment of going beyond deep despair, beyond the poverty that had plagued Koreans until then. A moment that allowed Koreans to go beyond their sense of defeat in front of non-democracy and dictatorship. I hope you have a chance to examine it

more closely later.

4차시 개발-성장과 그 이후, 또는 국민과 인류

When talking about modern-day Korea, it is difficult to avoid mentioning the figure of Park Chung-hee. Park Chung-hee wa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from 1963 to 1979. Prior to becoming President in 1963, he had already seized power for two years. In 1961, there was a coup d'état known as the May 16th coup, in which Park Chung-hee played a leading role.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Korea, the narratives of the April Revolution and the May 16th coup may be familiar. The former president Rhee Syngman had caused many problems during his 10 years in power, and was eventually forced to step down due to the April Revolution, a nationwide student-led uprising demanding democracy.

It can be said that this movement was an important gene for modern-day Korea. After all, Korean demonstrations are renown. It would have been great if we could say, "We lived well after the April Revolution," but unfortunately, that was not the case. After the April Revolution, there was about a year of serious turmoil. People who had experienced the power of demonstrations chose to continue to use that method despite various minor inconveniences. There were also voices demanding various rights, an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many political parties and the media grew more influential. In a way, it was a time of chaos, but also a time of natural diversity. Overall, it seems that people couldn't handle the situation. The May 16th coup in 1961 was an event that occurred at the end of this chaos or release of tension. We will avoid discussing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is event. Even today, when talking with Korean friends or acquaintances, reactions about Park Chung-hee vary greatly. Some people like him very much, while others dislike him strongly, but political talk is usually avoided.

Focusing on economic growth, we will now take a look at Korean novels from the 1970s, and then skip ahead to think about the temporal and spatial dimensions of contemporary Korean novels.

Since becoming president in 1963, Park Chung-hee and his political power led nationwide development at an astonishing pace. However, development, by its nature, would have been slower with democratic procedures for gathering opinions. I wonder if, if it had been slower but step by step, we would be living in a more solid and trustworthy world today. If people had chosen a different path than Park Chung-hee's speed-driven approach at that time... But what happened in reality was the speed war led by Park Chung-hee. The picture above shows a highway construction site. It looks quite different from the current Kyōngbu Expressway. The picture below shows development in Kangnam (South of the Han River). It is hard to imagine Kangnam without highways. You know Kangnam, right? You might remember Psy's "Kangnam Style" which was a hit a few years ago. The river flowing through the center of Seoul is the Han River, and the southern part of the Han River is called Kangnam. The area of Sōch'o-gu and Kangnam-gu are particularly called Kangnam. To connect this area to the Seoul city center, bridges were needed, and there was already a bridge built during the colonial era, which is now called Hannam Bridge. As this bridge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highway, it accelerated Kangnam's development. The price of land in the Kangnam area increased by a thousand or two thousand times. Its history is complicated, involving political and social issues, but we will not delve into them today.

Looking at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1960s and 70s, one encounters the phenomenon of apartments. Of course, we should talk about more fundamental changes, such as factories or changes in rural areas, but the most noticeable change in daily life was apartments. On the left is a photo from the 1960s when apartments were newly built in Yōūido. On the right is a more famous photo. Now there are apartment buildings in Kangnam, But in this scene a farmer is tilling a field. This was only fifty years ago. What does Seoul look like today?

While Seoul was undergoing such changes, there were several writers who experimented with literary possibilities in the city's space. Among them,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two writers, Ch'oe In-ho and Pak Wan-sō. I

hope that there will be other opportunities to discuss them in detail.

Ch'oe In-ho was born in 1945, the year of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He was one of the leading figures in the young literary generation in the 1970s, known for his modern writing style and fresh perspective. It is difficult to pinpoint what was so innovative about his writing, but he was known for his lively and carefree attitude, with a lack of obsession over what is deemed proper in society, and politics. He wrote brief and speedy sentences, and showed a deep interest in the youth of the city.

One of his novels is called <The Stranger's Room>, published in 1971. I would like to briefly examine this novel. As <The Stranger's Room> was published in 1971, which is almost the same time period as the apartment construction scenes that were shown in the slides earlier. The protagonist of <The Stranger's Room> is a young man who has recently married, who lives in what appears to be an apartment. When he returns home from a business trip, he expects his wife to be there, so he rings the doorbell, but there is no answer. Then, someone from the neighboring apartment comes out and asks, "Who are you? It might be the corridor-type apartment. After this, the scene that unfolds is the one we just talked about. The protagonist says, "I live next door." But the neighbor responds, "I've been living in this apartment for three years and have never seen someone like you before." Amidst this chaotic exchange, the protagonist enters his home but his wife is nowhere to be seen. He becomes entranced by a hallucination or delusion in which objects seem to grow larger, the table becomes larger and chairs assert their presence, and the refrigerator hums and roars. He feels as though he is becoming more and more like an object, and the protagonist finds himself spiraling. This is a rough outline of the novel. Currently, where do people live? It has been around 20 years since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living in collective housing in Korea surpassed 50%. Nowadays, if we include housing that is called "multiplex housings" in addition to apartments, the proportion exceeds 80%. Apartments are also a distinctly Korean phenomenon. Anyone who comes to Korea is said to be surprised by the abundance of apartments. We don't know how the landscape will change in the future.

Why have apartments gotten so popular among Koreans? Is it simply as a living space, or as a means of investment? You may wonder about the reasons why Koreans still love apartments. When we examine the cultural history of apartments, we cannot but ask those questions. The scene of the novel, saying that "I live next door, but I don't know you." This scene has been going on for over 50 years.

The author Pak Wan-sŏ is much older than Ch'oe In-ho, whom we discussed earlier. She is more than ten years senior to Ch'oe, but her literary career started later than Ch'oe's, so we are discussing her work later. The novel we briefly examine today, <Identical Apartments> was published three years later than Ch'oe In-ho's <The Stranger's Room>. In reality, Pak Wan-sŏ moved into an apartment in the early 1980s. She lived near Korea University in a neighborhood called Pomun-dong for a long time, but she moved to an apartment complex in Chamsil in the early 1980s. Many people began to yearn for apartments in the 1970s, and in the 1980s, they began to move in, and through the 90s and by the time the 21st century arrived, most people seemed to have settled into apartments, or at least tried to. As for me, where do I live? I have mostly lived in apartments in my life.

The narrative in <Identical Apartments> goes like this: a young housewife moves into an apartment that she had dreamed of for a long time, feeling overjoyed. She has twin sons, and they seem to grow up healthier in their new environment. However, the problem is that her life seems no different from the lives of many people living next door, above, or below her. They all seem to desire similar things and are becoming similar in form. The speed of this contagion is surprising in an apartment. For example, if someone changes their curtains in the apartment next door and says, "They are pretty," the trend catches on. Or if someone asks, "What are people eating these days? I heard that's the trend," it catches on. The protagonist of this novel becomes increasingly disturbed by these situations. "These identical rooms were terrible." To make matters worse, the protagonist has twin sons and she constantly mixes up with their names. And do you know what this is? "The act of checking my husband's face through a glass bead that is the size of a

bean," this is inevitable thing with the structure of an apartment. Through security cameras or lenses, one can see the existence of the outside world. This situation felt so inhumane. What would eventually happen to someone who lives this way?

You can find out by reading the novel. As a Park Wan-sŏ novel, it is also famous for its somewhat shocking ending. You may have various thoughts or even feel uncomfortable after reading the ending of this novel.

This all happened 50 years ago. We have skipped over 50 years. During those 50 years, there were many things that happened. There was continuous growth, the so-called democratization in 1987, the IMF situation that began in 1998, and other international financial crises. Nowadays, in Korea, the problem of de-growth or low growth is an issue of concern. If you ask young people in Korea these day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they are interested in may be climate change. There may be other important issues such as gender issues. As the term "climate change" suggests, we are facing not only national issues, but also global issues. This is a different situation.

The novel is a genre that fundamentally resonates with the politics and sentiments of the era of the nation-state system. At least I think so. The novel was a genre that resonated with the politics of the nation-state, class of bourgeoisie, and economically with capitalism. Therefore, we can say that it is now time for the novel to undergo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Therefore, I'd like to briefly introduce SF writers who are currently active. I thought it would be a good way to wrap up our time today. This space is the universe, and I don't know if I will ever be able to see it with my own eyes. Two suns, ten moons, a third gender beyond male and female, anything might be possible in space. Anything can be imagined in the future and the setting of the universe. SF is a genre that makes us see the present differently by imagining the future. In SF, issues such as gender, class, and nation are significantly understated. Although it's bound to have similarities, in SF's world humans face the world as the human species, *Homo sapiens*. Recently, many of the most active novels in Korea are in the SF genre. Among them, Kim Ch'o-yŏp is probably the most widely popular writer. She

studied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ing from POSTECH in Pohang. And she's still young, born in 1993. I remember meeting her not long ago.

She has written novels like <If We Can't Go at the Speed of Light>, <The World We Just Left Behind>, both of which are collections of short stories. <Greenhouse at the End of the Earth> is her recently published full-length novel. You may wonder what the story is about. The novel has been confirmed for adaptation into a film, so we might be able to see it soon. The Earth, which had almost been destroyed, has been revived. During this critical time, there was an event or presence that could be called the "Greenhouse at the End of the Earth." The novel portrays the process of finding out what it was.

Today, let's move forward by showing one short story from each collection. This is a part of the short story "Why the Pilgrims Don't Return" in the collection <If We Can't Go at the Speed of Light>. These pilgrims are people belonging to another community. Every year, this community selects dozens of people of a certain age to be sent as pilgrims to Earth. Now Earth is an alien planet, right? But here, this planet is really quiet and peaceful. There is no conflict, no one shouting, and there is no strict gender, class, or regional division that can be shown. Someone close to the narrator of the story left on a pilgrimage but never returned. This is an explanation of the story of someone who did not return. Earth is a painful place, but here is closer to a utopia. So, why do these pilgrims choose to stay on Earth? Of course, they are only a very small part of all the pilgrims. This Earth is the origin of its community, but it's a corrupted and outdated place. If here is a new world, there is an old one. However, as much as there are conflicts there, there is also love. This is a rough summary of this short story.

After summarizing it like this, I feel very sorry for the author. As for novels, one should read the original text to understand them. This is a space that we have never seen before in Korean novels, a utopia between Earth and an alien world.

Shall we look at the short story "The Last Lionie"? Here, Earth disappears entirely in the background. Two alien planets appear. One planet is where the

narrator came from, and the other is a planet named 3420ED from the speaker's planet. As the story unfolds, the history of 3420ED as the city for immortals is revealed. It was a city of immortals, where people with immortal genes lived. There was an epidemic in the city, and most of the residents escaped. Only one person stayed behind to take care of non-human entities such as robots and machines in the area. This story tells the tale of the two intertwining events. If we look at this, not only the distance between Earth and an alien world, but also the distance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becomes blurred or closer.

Come to think of it, nowadays, we live and interact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experiencing a world that has changed in so many ways. Did you not have a conversa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yesterday? I did it too. I even asked AI to draw a picture. We do not know how we will coexist in the future, whether it is among humans or beyond human biological species. Modern Korean novels have long lived within the time and space of the Korean peninsula, but they have not missed out on interest towards other regions or solidarity with other areas. Now that we are in a new era, I think the appearance of Korean novels will change, just like all of you.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讲义

1차시 한반도의 근대와 식민지 경험

大家好. 我是在韩国高丽大学学习和教学的Kwon Bodeurae. 今天, 我们将就‘韩国现代小说的时空’这一主题进行一些讨论. 其中将以作家李人植和作家李箕永作为焦点.

标题为‘韩国现代小说的时空’. 这个题目没有想象中那么简单. 因为韩国这个名称本身的限制性. 如果把韩国视为与Korea同样的用语的话, 应该就没有什么问题了. Korea这个名称始于高丽时代, 也就是700年、800年甚至更早. 因为是当时出现的名称. 高丽这个国家名叫做‘Korea’, 是外国人发音而产生的词.

但严格来说, 韩国这个名称是大韩民国的简称. 大韩民国是1948年在韩半岛南方建立的国家, 是持续至今的我作为其中一员的国家. 在这课堂上, 如果说是韩国, 不仅是指大韩民国, 而且很多时候会统称为之前的韩半岛历史. 希望大家能理解. 例如, 我们将从朝鲜或大韩帝国时期开始讲述.

朝鲜这个国家是1392年, 14世纪末建立的国家. 其中, 最后一段时期还经历了拥有大韩帝国这个其他名字的时期. 大韩帝国, 韩半岛曾有过帝国时期. 虽然是10年多一点的时间, 但以前的朝鲜这个国家大体上属于中华体制. 是在东亚中以现在也作为国家存在的中国为中心形成的体制, 例如现在的韩半岛、日本、越南等, 这些地区都属于这一体制. 共享文字, 共享历法, 统治体制也类似. 最重要的是, 在年末、年初向中国行礼问候的同时从根本上作为体制的一员生活. 因为是比较复杂的故事, 所以好奇的朋友们在其他机会进行了解. 此前生活在这种体系中, 从大韩帝国这个新名称出现开始, 就进入了另一个世界. 一般都是这么说的. 以‘开港’的名称说明这个时期. ‘开港’顾名思义就是‘开放港口’的意思. 这意味着, 此前在韩半岛非常有限的范围内, 与其他地区进行贸易, 现在正式站在了世界化的舞台上. 最初的事件可以说是与日本签订的《江华岛条约》. 紧接着还与美国签订了条约, 经历了这样的变化, 渐渐脱离了曾以为只有中国中心是全天下的世界. 在此之前, 不可能没有“只有韩半岛居民生活, 我们是独立的存在”的意识. 因为比较早的发展了独立语言, 独立文字也已经从15世纪开始使用. 但可以认为“我们是在所谓一个国家的存在中生活的人. 这比任何都重要.” 这种意识的普遍化是在开港以后. 当时“怎样才能让朝鲜或大韩帝国富强起来呢?” “我们如何作为其中的一员出现在世界面前呢?” “作为朝鲜的一员, 作为大韩

帝国的国民，如何生活呢？” 开始出现了这些问题。

李人植被选为代表这个时期的作家。李人植以新小说作家而闻名。‘新小说’顾名思义就是‘新的小说’。朝鲜末期，也就是19世纪末20世纪初，可能是因为出现了各种新的尝试，所以当时写小说的人认为小说也是新小说的意识非常强烈。因此，李人植是第一位创作这种新小说的作家。作为媒体人也非常活跃。因为当时是近代报纸正式出现的时候。在韩半岛，本来报纸几乎不发达。

全国民都知道重要消息的事实反而让人觉得有些不安。甚至有报道称，在朝鲜时代，制作并分发某种报纸的人被处决了。从这一点来看，我们现在生活的近代、现代的时期与以前大不相同。李人植以所谓的亲日经历而闻名。在韩国，‘亲日’这个词是话题性很高的词。站在日本一边，倒向日本出卖民族，大体上可以理解为这种意思。因为是复杂的问题，而且日后也不是容易的问题，所以关于亲日的问题就到此为止。

之所以说李人植与‘亲日’这个名字联系在一起，是因为根据记录，韩国和日本合并，或者更严格地说，韩半岛成为日本殖民地时，李人植负责了幕后工作。可以预想到小说中也会有问题性的一面，实际上也确实有那样的一面。让我们来看一下李人植小说中被评价为最早的新小说的《血之泪》。

《血之泪》是‘血泪’的意思。怎么能说是血泪呢？因为是有很多事情要流下血泪的时期吗？这本名为《血之泪》的小说诞生于1906年。110多年前。如此出版的小说作为背景的年代比这稍微往前一点。其背景是1894年至1902年。韩半岛是在1894年是非常复杂的一年。当时发生了被称为东学农民运动的大规模群众起义。以帮助镇压的名义出动中国军队，中国军队与国际条约当时有些复杂。所以，以‘中国军队出动了，我们也出动的名义’，日本也出军了，最终中日两国展开正面对决。当时的战争被称为甲午中日战争，为人熟知。这本名为《血之泪》的小说的出发点就是甲午中日战争。在甲午中日战争中，平壤这座城市，现在是朝鲜的首都平壤。生活在首都的小女孩在战争中失去了父母后如何成长，可以说这就是小说的核心。作为主人公的少女的名字叫金玉莲。这个小姑娘也许理所当然地是平民出身。这一点与之前的小说有所差异。如果说在以前，高贵的血统过着怎样的人生是小说的重要话题的话，那么现在平凡人变得重要了。玉莲失去了父母或者与父母分别了，准确地说，在战争中会怎么样呢？在战争中失去父母的小女孩，应该很艰难吧。但玉莲在日本军医的帮助下去了日本，在那里接受了教育，后来又去了美国接受了教育。沿着玉莲所走的路来看，应该是这样的。大家有些看不清吧。

这上方是韩半岛。从韩半岛的平壤去大阪。在日本大阪接受了教育。因为出现了某种问题，所以养母没有对玉莲投入感情，就是这种问题。所以坐船去了旧金山。没有停留在旧金

山. 而是去了华盛顿D.C, 美国首都, 在那里接受了教育. 实际上玉莲在美国生活的场面并不是那么重要. 其实没有几页. 篇幅较多的故事是在平壤经历战争的时候, 还有在日本接受教育、因养母的薄待而受折磨的时候. 所以《血之泪》算是当时朝鲜人探险了非常陌生的空间. 更何况, 作为一名女性, 应该更是如此吧, 那个小女孩竟然经过日本到了美国. 李人植似乎很了解日本. 因为有留学经验, 而且在日本当过新闻记者. 但没有去美国的记录. 所以似乎对美国不是很了解.

另一方面, 就连李人植十分熟悉的日本这个空间, 对于朝鲜人来说也是太过陌生的, 所以带着玉莲, 这部小说的主人公, 去往日本的同时, 李人植这样写道. "在玉莲眼里的一切都是第一次见到的. 港口里船桅像麻茎一样高耸入云, 街道上二层、三层的房子像进入云层一样, 像蜈蚣一样爬行的火车从嘴里呼呼地冒着烟, 船像天动地动一样滚动, 像风雨一样奔跑." 从现在我们的立场来看, 事实上很难想象. 可能这一切都是第一次看到吧. 船只充满港口的风景、市场、发达的市场、二层、三层楼的景象、火车、轮船, 第一次看到的时候应该怎么理解呢? 一直拼命地把我所知道的对象召唤出来. "像蜈蚣一样爬行的火车", 船发出的声音"如天翻地覆一般", 也就是说像打雷和地震时一样, 用这种方式描述. 也许玉莲是以这种既害怕又充满好奇的态度开启了日本和美国的冒险.

《血之泪》中重要的空间是学校空间. 特别是在日本, 学校空间在小说中非常重要. 应该是这样的空间吧. 据推测, 明治时期, 也就是从19世纪后半期到20世纪初期的日本女校风景大致如此. 小说中描写了玉莲就读于这样的学校. 因为即使去美国也接受了教育, 但作为李人植对美国也很难有实感, 所以关于美国的教室风景或城市风景的描写并不详细. 以这种方式结束教育的玉莲会成为什么呢?

因为《血之泪》以未完结而结束, 所以对于玉莲长大后过着怎样的生活, 没有展开充分的叙事. 但最后的场面大概可以知道. 玉莲与一同来到美国的青年订婚了. 如果是他们的话, 应该会举行这种新式结婚, 而且至少也会怀有改变国家、成为社会精英的野心和抱负. 不知道这个婚礼看起来像不像新式婚礼, 这是1910年代的照片. 更何况1900年代玉莲可能已经结婚了. 但在那个年代婚纱等在韩半岛还没有出现, 这种程度算是相当的新款了. 看起来像是两对新人的婚礼. 女性和男性敢于并排拍照的结构也是如此. 我也不太清楚. 《血之泪》中出现的男性可能抛开这种韩服, 穿上燕尾服. 这些人发誓:"将来要使我国富强起来. 怀着这样的想法, 我们结婚了."从叙事中消失了. 以中断的状态结束了. 此后的续篇也没有好好完成.

只是通过小说了解了1900年代的韩半岛风景. 出现了将广泛发展的世界, 但对这个世界还没有多少了解, 虽然以这种方式, 出现了使我国富强起来的节目, 但这个节目缺乏具体

性, 可以说是在这种状态下只看到了一点叙事. 与玉莲或具完书所想的相比, 历史的走向似乎有所不同.

当然, 具完书是这样说的. "将日本和朝鲜捆绑在一起, 建设成大国, 使我国富强." 因此, 具完书所想的不仅是韩半岛. 如果以友好的视线来看的话, 可以考虑一下最近的EU、EC等. 算是一种联合体, 也有成为联邦的情况. 我也不知道这种可能性是1%还是0.1%. 实际上, 1910年发生的事情是以'合邦'的名义表明的. 但实际上是殖民化. 这里能看到'合并'一词. 这是为了纪念所谓的合并而推出的印刷品. 中间是明治天皇, 右边是高宗, 左边是纯宗, 这种方式. 殖民化之后的韩半岛, 同时经历了近代化和殖民化的双重轨道. 仅仅是近代化, 恐怕也不是一件容易的事情. 在韩半岛, 几乎同时区分了近代化和殖民化, 区分两者本身并不容易. 但身份制度首次被取消, 资本主义进入, 这样的世界即使不是殖民地, 也会十分艰险. 殖民的条件使它变得更为苛刻. 这里看到的是东洋拓殖株式会社的照片. 可以说相当于英国的东印度株式会社. 真可谓是以开拓殖民为主要任务的公司. 所谓殖民, 顾名思义就是转移人们. 让生活在日本的人实际生活在朝鲜. 这样做可以方便地改造朝鲜, 搬运韩半岛的各种资源, 进行掠夺, 只要考虑到这种程度的改变就可以了.

3·1运动不能不简单地看一眼就略过. 3·1运动是1919年发生的大规模群众起义运动. 虽然很难详细说明, 但是此运动持续了两个月左右, 牺牲了很多. 据推算, 仅死亡者就超过了1000人. 不是估算. 光是准确的数字就超过1000人. 通过这一过程, 韩半岛的民族意识和反日意识变得不可逆转的坚定. 让我们独立吧, 解放吧, 这样在全国各地奋起反抗, 结果1000人死亡, 数万人入狱, 以这种方式结束了. 另一方面, 就像下方所看到的这些女学生. 这些受过新教育的学生们也崭露头角. 同时, 这些人引领新文化的情况也随之展开. 这样的人本来也应该介绍一下. 李光洙, 金东仁, 廉想涉等作家.

这些作家们将在其他机会进行介绍, 在理解3·1运动之后正式展开的韩国文学领域方面, 这些人是非常重要的存在, 但今天将略过这些人, 稍微了解一下李箕永这位作家. 李箕永以作为把目光转向劳动者、农民的现实的作家而闻名. 可以说是殖民地时期无产阶级文学的代表性作家. 经过1920年, 经过3·1运动之后不久, 韩半岛的社会主义浪潮就变得非常强大, 很多人认为通过社会主义、通过把阶级当作问题的路线, 可以实现民族解放. 李箕永可以说是这一路线最重要的代表之一. 也曾写过这种的小说, 分裂以后在朝鲜一直活动, 直到1980年代去世. 希望这也是其他机会可以听到的主题. 似乎可以通过李箕永思考一下这些问题.

刚才看到东洋拓殖公司的照片了吧. 并且讲过日本通过这种机构, 正式开始了对韩半岛的掠夺. 在各种意义上, 首先可以说是对公有土地的掠夺. 公有土地, 可以说是commons. 近代以前, 土地所有, 或者一般财产所有权本身与现在不同. 在以前, 排他性所有权并不发达,

例如说哪里有农田时,当然也有地主的所有权,但也有国家的绝对所有权,居住在那片土地上的人也可以买卖土地的所有权.有着种种复杂的体制.土地调查事业在1910年代非常重要.借此转变成了近代性的土地所有关系.

我们现在知道,与此同时产生了比以前更加被排除在土地之外,更加贫穷的农民.例如,有统计称,在全体农民中佃户比率接近80%.另一方面,有记录称,确定的租佃费的是50%,但实际上承担了比这更严重的租佃费负担.居然是50%的租房费,光是这一点就太可怕了.一年努力种地,却要贡献出一半.用现在更贴切的比喻来说的话,努力工作一个月,一半的收入要拿来交租金.据说是比这更困难的条件.

李箕永从1933年至1934年间发表的名为《故乡》的小说很好地描述了这种情况.这里登场的主要人物是男女各一名.这里看到的是名叫‘甲淑’的女主人公.这里是名叫‘金熙俊’的男主人公.甲淑是地主的女儿.相反,金熙俊是农民的儿子.是刚开始还过得去,但在送儿子去留学的过程中,生活变得越来越困难的农民的儿子.但这些人稍微交错的处境中,再次见面了.农民的儿子金熙俊成为社会主义者,起到了带头作用,准确地说不是地主的女儿,而是二地主的女儿.所谓‘二地主’的存在是代理地主管理土地的人物.二地主的女儿甲淑这名女性,在熙俊的指导下,重生为其他存在,可以说这是叙事的核心.但如果以两个人物概括整个叙事的话,事实上,就会一下略过出现在这种场景中的农民们.存在有种场面.这是互助组的场面.互助组是韩半岛长久以来一起劳动的习惯.当然其他地区也有类似的习俗.这样描写了农民的样子.首先是从给二地主的稻田锄草开始,锄草指的是除去杂草这样的事情.头上扎着毛巾,别着锄头,是什么样子呢?"一直露到大腿的小腿就像吃了青蛙的蛇肚子一样鼓出来的伸出来的腿",大家能追上吗?膝盖后面,小腿部分,结实的后面"像吃了青蛙的蛇肚子一样",描写了腿部肌肉如此突出.这种通过劳动锻炼的身体在《故乡》中非常重要.实际上也出现了这些人如何与地主抗衡,与二地主对抗的故事,也有简单的胜利的故事,今天将这样粗糙地考察一下经过1920年代、30年代重要的农民生活、佃农争议,以及韩半岛的时空.

2차시 식민지 모더니즘과 도시 공간

大家好. 今天我们将以‘韩国现代小说的时空’为主题, 了解一下殖民地现代主义的作家们. 其中, 特别考察李孝石、朴泰远、李泰俊作家是今天的核心. 讲过殖民地现代主义. 殖民地时期指的是韩半岛在日本统治下的1910年到1945年. 而殖民地时期还留下了各种复杂的问题. 其中的一些问题大家也应该知道. 至今为止一直引起争议的根本问题是殖民地时期的掠夺与近代化之间的关联程度. 殖民地时期, 例如, 如果只考虑韩半岛, 这里的总生产也很发达, 出现了铁路, 产生了道路, 城市也十分发达, 工厂也增加了, 这是事实. 我无法直接触碰这个复杂的问题. 现在试图从确认殖民地的条件下也进行了近代化这一点出发.

现代化的重要现象之一就是城市化. 现在被称为首尔的地方, 殖民地时期被称为京城. けいじょう的这个城市处于城市化的核心. 正是以这座城市为中心, 出现了堪称现代主义的倾向, 出现了堪称现代主义者的作家. 如果要问什么是现代主义的话, 这个问题太复杂了. 应该这样说. 第一次世界大战前后, 如果稍微快一点的话, 那就是从19世纪末开始在欧洲出现的文学倾向、艺术倾向, 同时蕴含着对近代文明的陶醉和对近代文明的强烈怀疑, 从形式上来看, 与我们想象中的简单的小说、简单的诗有很大的不同.

第一个要介绍的是作家李孝石. 1907年出生, 1942年去世. 相当于30多岁. 我现在比李孝石活得还久. 此人出身于江原道平昌. 大家在韩国去过江原道吗? 一般提到江原道, 是以大海、名山和休假等形象被韩国人铭记的地区. 不可能那么单纯. 在这里出生, 出生于江原道, 来到首尔的作家, 在大学里感受到了社会主义思想的认同. 对此产生了共鸣, 作为所谓的同伴者作家开始了作家生活. 同伴者作家, Fellow Traveler是指虽然不直接参与社会主义路线或加入该组织, 但以相似的语调活跃的作家. 在1930年代初的时候, 放弃了社会主义路线, 变成了可以称为美学主义的倾向. 美学主义、唯美主义、耽美主义、用法相似. 这样说的话, 大家可以大致理解吗? 如果问韩国人李孝石这个名字的话, 可能谁都会说“啊!

《荞麦花开时》!”这是一篇非常著名的作品. 在此不进行详细说明. 只讲一下第一个段落.

在描述荞麦花开时的田野时, 写道“就像撒了白色的盐一样, 喜不自胜.”从某种角度来看是不寻常的描述. 以这种描写而闻名的小说. 故事情节本身可以说是‘寻找某个集市商贩的旧爱’. 今天我们来看一下李孝石小说集中的第一部短篇小说集《露领近海》. ‘露领’指的是‘俄罗斯领土’. ‘露领近海’也就是‘俄罗斯领土附近的大海’. 很难将这

本小说集或小说集的小说与城市、现代主义这些问题直接联系起来。正如李孝石所说的‘作为同伴者作家出发’一样，反而可以看到强烈的社会主义色彩。但其中已经表现出了对城市文物的关心。另一方面，可以看到在社会主义的名义下，追求超越国家和地区的世界主义。因此这也与现代主义有很深的相通之处，所以我们来考察一下。海参崴是符拉迪沃斯托克。

其中，以我刚才介绍的《老龄近海》中的题为《北国私信》的短篇为中心来看一下。‘北国私信’的意思是‘从北国寄来的私人信件’。只是以寄给朋友的书信的形式写的。也许是海参崴的某个北部的港口，作为朝鲜青年的话者所经历各种的见闻是小说的背景。但重要的事件是在某个咖啡厅里遇到了一名叫萨莎的俄罗斯女性。所以有点奇怪。名分是社会主义，背景是俄罗斯的海参崴，看一下刚刚进入社会主义的国家的生机勃勃的风景吧，虽然这是名分，但占小说三分之二左右的是，这名叫萨莎的女性是多么有魅力，在这名女性提出的接吻拍卖中，我是如何获得荣誉的，这种内容。接吻拍卖…。看看之前萨莎是怎样的存在。这样就能看到社会主义和审美主义、唯美主义等奇妙地混合在一起的景象。萨莎，晚上是在咖啡厅弹吉他的人。白天是海上国家安全部的女书记。以前在莫斯科的时候，作为狂热的集体组织的一员，还起到了革命家的作用。

关键是革命家，而且还晚上到咖啡厅，摆出如此迷人的姿态。前面已经说了接吻拍卖。在这里，没有什么特别的理由，十分的无厘头。某天晚上，萨莎的吻，会给与表示支付更多钱的人荣幸，就这样开始了接吻拍卖。而且已经对萨莎产生好感了的‘我’参与了拍卖会，喊出了无法承受的巨额高价，并占据了权利。喊出了1000卢布。应该比1000万韩元多吧。但从结果来看，二人确认了彼此的爱情，如果说这种温馨的话，那是温馨但又非常抽象的故事。我觉得韩国现代小说以这种方式扩大空间的样子别具一格。

接下来我们来考察一下朴泰远这位作家。今天将一同介绍朴泰远、李孝石和李泰俊。把这些人放在一起不是没有原因的。这些人都参加过九人会这个团体。大致来看一下韩国文学史，可以说在3·1运动事件发生之后的10多年里，社会主义文学是起到了中心作用的文学。但进入30年代后，日本帝国主义侵略加速，对社会主义的压迫越来越严重，其他倾向也正式开始萌芽。

这一情况可以乐观看待也可以消极看待。当然可以理解为，在作为主流存在的社会主义文学消失后繁荣起来，本来是没有权利的文学，也可以看作是曾在社会主义主流化过程中无法发出声音，但分明存在的各种欲望的开化。刚才看到的作家李孝石和作家朴泰远都属于这种新倾向。但作家朴泰远后来越北了，在朝鲜文学中也扮演了重要的角色。因为这是另一个故事，所以即使有点意外，在此略过。

参加九人会的人, 还有李箱. 有这样的人, 右边是这里发行的名为《诗与小说》的机关杂志. 这作为参考资料, 暂时看一下就可以了. 我刚才说过, 伴随着殖民化, 理所当然地进行了近代化, 城市化.

是什么程度呢? 这张照片的年代不太合适. 应该是1950年代的照片吧. 但因为在殖民地时期已经有这座建筑了, 所以希望大家以这种视线来看待. 这是三越百货商店, 1930年在首尔开业的百货商店. 现在是新世界百货. 来首尔的话, 可能会路过新世界百货商店. 虽然经历了各种曲折, 但最终还是留存了下来. 可以认为“啊! 原来是1930年的这座建筑啊.”还建了百货店, 道路也变宽了, 汽车行驶, 还开了咖啡厅, 各种接受过近代教育的人充满了这一空间. 当然, 即使是大城市, 也是非常有限的. 以1930年代为基准进行比较.

这是以30年代初期为基准的. 当时首尔有70万人, 而东京有550万人, 伦敦有800万人. 以首尔为例, 到了30年代末, 随着地区本身的扩大, 人口突破了100万人. 地域本身变广, 偶尔会出现这样的事情. 拓展某个城市的界限, 当这种行政措施出台的时候, 30年代在首尔也发生过同样的事情. 但近100万人的人口绝对不是小数字. 即便是现在, 100万人规模的城市也不是常见的存在.

但首尔这个城市呈现出复杂的发展情况. 根据地区不同, 例如南边是日本人, 北边是朝鲜人的更多的双重城市, 虽然也有刚才看到的百货商店, 但整体上单层建筑较多, 以单调的城市景观为特征等等. 也能看到各种的洋房. 再了解一点. 这是现在还能看到的建筑. 当时的朝鲜银行, 就是今天的韩国银行. 在朴泰远写的小说中, 我想先来考察一下《小说家仇甫氏的一天》. 顾名思义, 就似乎别名为仇甫的小说家在首尔度过一天的故事. 即便是现在也能写这种小说. 那时没什么职业的、名为仇甫的小说家没有约的一天.

出来在街上晃荡. 去一下这家茶馆, 去一下那家茶馆, 无故地坐上电车, 然后在街上徘徊, 去一下这里, 去一下百货商店, 就这样. 相当于如果没有城市, 就不可能有这种小说. 所谓‘城市漫步者’这个词在欧洲很有名. 可以说是展现了‘城市漫步者’的面貌.

可以说是1930年代初期的咖啡店的风景. 暂且来看一下. 这是茶馆的下午2点. 现在首尔的下午2点怎么样呢? 一般都会有没有职业的人吧. 一般坐在那里喝茶、抽烟、听音乐的大部分都是年轻人. 但他们是看起来已经对人生感到疲惫的年轻人. 虽然偶尔会有穿得好的人也有弹性的样子出入这里, 但不知为何, 当时京城的咖啡厅看起来更像落伍者的空间. 是有些复杂的面貌, 还是现在也能经常看到的那种样子呢?

如果说通过《小说家仇甫氏的一天》看到的城市是以市中心、咖啡厅为中心的话, 那么在

《川边风景》的小说中朴泰元展现的风景则截然不同。《川边风景》相当于现在的清溪川, 当时也是清溪川。

这是描绘清溪川周边风景的连作式长篇。也就是说, 名为A的人物登场, 名为B的人物登场, 以这种方式一直延续下去的故事。第一个场面就是从清溪川洗衣处开始的。和今天的样子比较起来, 感觉很新鲜。因为已经过了将近100年的岁月。这里所展示的城市与刚才小说家在咖啡厅转悠的城市有所不同。现在我们看来, 虽然说是城市, 但反而看起来像村落共同体的城市的一面更多。

相当于简单考察了以1930年代的首尔为背景的小说。只考察首尔太可惜了, 要不要也看一下平壤? 通过一位名叫李泰俊的小说家。李泰俊这位小说家生平同样十分复杂。谁的生平事迹不复杂呢? 从小就几乎以孤儿长大。虽然故乡是今天的江原道铁原地区, 但主要在首尔生活。在首尔很活跃。但这个人以平壤为背景留下了一部小说。大家大概可以猜到, 平壤现在是朝鲜领土。来考察一下李泰俊的《江冷》这部小说。这里所说的‘江’是大同江。是贯穿平壤的河流。由此可以推测这是关于平壤的故事。是1938年出版的小说。但在这里看到的平壤的景象与之前李孝石在海参崴或朴泰元在首尔所展现的景象有所不同。意思是说, 这不是近代化城市的面貌。是因为平壤是欠发达的城市吗? 不是的。当然, 与首尔相比是欠发达的。但平壤也是在近代化方面比其他任何地区都积极地站在前沿的地区。因此, 这里也是迅速具备了城市面貌的地区。但李泰俊并不想表现出那种面貌。李泰俊眼中的平壤, 是以充满乡愁的视线审视的平壤。

我们来看一下例子吧。一边看名为浮碧楼的阁楼一边讲一下。阁楼是过去韩国的传统建筑形式之一。大家可以理解为没有墙壁, 只有屋顶, 一般是为了眺望风景而建造的建筑物。这里是一幅即将颓败的样子。只是挂着失去光泽的旧匾额, 没有一只鸟。另一方面, 像朝鲜时代建造的古老的木柱, 这些木制装饰, 散发着憨直的纯情。今天作为近代城市的平壤, 似乎与1938年当时的平壤没有关系。李泰俊一边展示平壤一边说道: “朝鲜自然为什么看起来如此悲伤呢?” 在这里拍摄展示的是浮碧楼。右边是最近的浮碧楼风景。平壤市民出门晨练的场面。李泰俊为什么在1938年表现出了与现代感略有差异的感觉呢?

李泰俊在九人会的很多人当中也算是复古爱好者。是一位强烈体现对于逐渐消失的事物的乡愁的作家。例如, 正在消失的书, 正在消失的以前的东方风景, 特别喜爱这些。对于被称为朝鲜时代各种古董物件也有着喜爱。也许正因为如此, 李泰俊在近代城市生活, 以近代城市为背景, 创作一篇具有强烈个性的文章的同时, 始终没有停止对逐渐消失的事物的视线。

《江冷》作为背景的时期更是让人切身感受到逐渐消失的事物的价值的时期。是这样的时期。出现了3名人物。小说家‘贤’, 作为话者的教师‘朴’, 也有企业家‘金’。‘金’是一名当红企

业家. 相反, ‘朴’是教授朝鲜语的教师, 但到了1938年, 朝鲜语课时逐渐减少. 课时减少了一半. 感觉过不了多久就要被学校赶出来了. 事实上小说家‘贤’就是收到这封信后奔赴平壤的. 《涓江冷》最后以这句话结尾. 据说这句话出自东方的古书《周易》. “履霜, 坚冰至.” 也就是说“现在还不冷. 更冷的日子, 更残酷的日子将会到来.” 可以说, 现代主义者们也即将面临着放弃曾经享受过的短暂的风格上的自由的时刻. 也就说, 从此过去一段时间后, 用朝鲜语、韩文创作本身就会变得困难.

所以前面所看到的作家们, 以后至少会同时进行日语创作. 李孝石、朴泰远、李泰俊都很难避免这种情况. 而且还会迎来新的时代.

3차시 해방 전후 : 트랜스내셔널의 경험

一想到1930年代、40年代这种时期, 心情就会变得复杂. 也许谁都会联想到第二次世界大战这一事件. 幸好到目前为止还没有经历那么大规模的破坏战. 第二次世界大战对韩半岛也产生了很大的影响. 大家应该很清楚. 1931年日本从被称为‘满洲’的地区开始, 1937年开始发动侵略中国大陆的战争, 在这种情况下, 对韩半岛的控制也变得更加严格. 这本身是在日本帝国的版图极度扩张的情况下发生的事情. 发生了很多变化. 左边不是韩半岛的, 而是台湾的,

无论是在学校还是在家里, 日语都要被用作唯一书写语言. 右边是志愿兵训练的场面. 起初招募台湾或朝鲜等殖民地青年为志愿兵, 后来开始征兵. 而且为了劳动或被称为慰安妇的领域中, 年轻青年男女被强制征用. 是如此困难的情况. 在这种情况下发生了各种变化. 今天将了解一下经历殖民地末期、殖民后的战争、分裂、通过这个时期活跃的两作家.

殖民末期的作家是金史良, 以及讲述解放、分裂和战争问题的作家崔仁勋. 金史良是一位以用日语进行活跃创作而闻名的作家. 就像刚才看到的那样, 在任何地区都要把日语作为国语使用, 在这种情况下, 日语的影响力必然逐渐增加. 在朝鲜人的日常生活中, 这种倾向也非常明显. 因此, 主要用日语写作, 在日本文坛得到认可的作家也开始登场. 金史良是其中之一. 如果说用日语写文章, 当然很容易想到对日本友好的态度, 但金史良却表现出比此更加复杂的一面. 解放前不久, 1945年初, 他去了中国, 摆脱了日本的影响力, 被称为朝鲜义勇队, 可以说是企图独立的部队吧? 也表现出加入朝鲜义勇队这方面的积极性. 但用日语写文章的问题是与此方面有些不同的问题.

想想看, 还需要什么? 坚守朝鲜语的问题和用日语揭示朝鲜的问题, 在二者之中, 持续产生着用日语继续保持抵抗的问题意识. 金史良的小说中最著名的《在光中》是以山田春夫这个少年为中心的小说. 小说以这种方式介绍了山田春夫. "是个让人无法理解的孩子. 不想融入其他孩子群, 总是小心翼翼地徘徊在周围." 虽然被排挤, 但还是欺负比自己小的孩子. 长相也确实有点阴森森的. 虽然是孩子, 但头发少, 像个傻大个, 眼睛有点白, 眼白很多, 应该是这样的吧. 这个孩子其实是日本人和朝鲜人之间出生的混血儿, 因此具有强烈的认同感问题, 试图一同思考这个孩子可以解决自己的问题, 这就是这部小说的展开.

这部小说的主人公是东京大学的学生, 现在说起来是从事一种志愿服务活动的大学生.

他本人虽然是朝鲜人出身,但也像日本人一样受到礼遇.那么这部小说的背景当然是日本了.像金史良这样用日语写作的人们,虽然不是经常以日本为背景,但以日本为背景的小说也非常重要.日本中的东京,其中押上是东京边缘地区.大城市的边缘一般都是这样.大阪也有这样的地区,像猪饲野这样的地方就是那样.东京地区周边的押上也有众多朝鲜人聚居,之前与很多穷人居住的工厂地带很近.好像因为这样而出名的.以该地区为背景,参加志愿活动的朝鲜出身的大学生和该地区的捣蛋鬼混血少年之间的相遇,讲述这个故事的就是《走进光明》.希望大家能这样记住.

《在光中》这部小说,我介绍的时候在《走进光明》和《在光中》两者中反复横跳.可能会有点混乱,所以再次强调一下这不是韩语小说的事实.日语题目是《光の中に》可以翻译成《走进光明》,也可以翻译成《在光中》.是《在光中》呢,还是走向光的《走向光明》呢?在小说的结尾部分,小说话者南先生,日语是みなみ先生带着山田春夫去的地方是东京市内的百货商店和公园.在此展现的是那里的风景.左边是松屋百货商店,右边是上野公园的风景.韩国小说是怎样的小说呢?以韩国为背景的?用韩语写的?讲述韩国问题的?韩国人写的?应该可以进行多种理解.虽然属于可以称之为韩国小说的范畴,但可以看到很多展现了丰富多彩的尝试的作品.《走进光明》是以韩国外部为背景,而且不是韩语而是用语言写的,但依然是在韩国文学的框架内讨论的小说.其中,ざいにち(在日)这一存在至今仍值得重新思考.

ざいにち与《走进光明》的山田春夫有些不同.山田春夫是混血儿.ざいにち是指从朝鲜来到日本,在日本永久生活的人们.现在ざいにち已经到了第三代.我在想是不是还有第四代.应该会有吧.想到这种存在,我认为《走进光明》是一部值得回忆的小说.

最近《Pachinko》这种小说刻画了ざいにち的存在,使其再次变得有名.无论何时,都有可以称为国家与国家之间存在的人们,我们是不是正渐渐成为无法只停留在一个国家内的存在,最后可以补充这样的想法.

跳过一点,来看一下作家崔仁勋.作家崔仁勋和作家金史良之间很难找到共同点.都有出生于朝鲜的共同点.金史良是平安道出身.崔仁勋来自咸镜道,从朝鲜来看,一般出身于右边的部分.韩国战争时,他来到韩国,此后一直生活在韩国.崔仁勋的长篇小说《广场》是韩国人之间非常有名的小说.是以韩国战争为背景的小说.小说本身是1960年出版的.一提到韩国战争,首先想到的是什么呢?我首先想到的是难民、民众的受难等.所以也会首先想到左边照片的东西.不仅如此,还会想到轰炸.发生了很多轰炸.最近出版了各种研究书籍,好奇的人可以参考一下.

崔仁勋也在小说中描述了战争时期的轰炸.但《广场》并不是直接着眼于那场战争现场的小说.

也就是说,在韩国战争中看到的避难的样子,轰炸的惨状,这些并不是《广场》的中心.这不是《广场》的中心,这一点应该也是《广场》人气的秘诀.刚才我说过《广场》是1960年出版的.是在韩国战争爆发10年之后.10年间应该出版了多种多样的小说.其中大部分是以赤裸裸地展现战争惨状为核心的.是不是只能如此呢?

更何况,从许多韩国人的立场来看,这场韩国战争似乎是没有理由和名分的战争.有些人可能不是这样的.因南侵而开始战争的朝鲜部分人士表示:"如果整个韩半岛成为社会主义国家的话……."也期待着这样能够实现的未来.但对大多数人而言,这场战争接近于无缘无故的内战.在韩国,政府虽然提出了北进统一的政策,但在生活中,无法切身地感受到理念上的对立,也不是敌对国,而是要与我的家人、我的朋友居住的地区展开战争的情况.《广场》以询问这场战争的根本的方式突破这个问题.如果说1950年代的小说以"到底为什么会发生这场战争?为什么这场战争如此可怕?我不知道.我只是被这场战争压倒了而言"这种方式回答的话,那么《广场》相当于以完全不同的方式回答了这场战争.被置于这一应答的焦点的是俘虏问题.韩国战争时期的俘虏不是简单的问题.其实说因为俘虏问题,所以战争拖了那么长时间也不为过.战争本身确实不到一年就处于了对峙状态.所以从那时就开始讨论停战协定了.

但之所以不能这样做,是因为各自抓获了不少俘虏,而使这些俘虏返回原属,这种简单的方式已经变得不可能了.也就是说,以前的战争,如果抓获俘虏,当然会将其返回原来的所属.或者作为自己的奴隶.这是非常复杂的问题,人类的自由、权利等这些问题都会介入到当时对战争的看法中.全世界都是如此.其中韩国战争是被置于十分重要的节点的战争.因此,将这些俘虏直接送回原属,还是询问各自的自由意志,把他们送到自己想去的地方等问题,延长了战争.

《广场》这部小说正是在此展现了虽然出身于韩国,但后来去了朝鲜,作为朝鲜军官战斗,但成为俘虏后,韩国和朝鲜都不想选择的青年.十分独特.据说,实际上有做出过这种选择的人.记录为76人.是不是真的很少,那么多参战人员中竟然只有76人.右边是参与韩国战争的中国军队后来选择台湾,举着台湾旗帜登上飞机的场面.这反而是容易想到的选择途径,朝鲜出身选择韩国,或者韩国出身选择朝鲜.但是<广场>的道路不一样.这或许就是《广场》存活这么长时间的原因.《广场》最初是以左边所示的形态登载的.这是1960年11月.此后多次发行单行本,内容也多次改写.修改了10次左右,在修改本中到底应该读什么,这也是不容易的问题.《广场》的主人公是一个叫李明俊的青年.就像刚才所说的,虽然出身于韩国,但是选择了朝鲜,最终想要去往中立国,但还没有到达.在中途自杀了,消失了.在去中立国的船上.当时中立国是印度,在现实中印度在韩国战争中的作用十分复杂,但可以跳过吗?大家会好奇吗?印度没有参与韩国战争.进行了医疗支援的程度.据说,当时担任首

相的尼赫鲁非常担心韩国战争会成为世界战争. 当时很多世界人都担心这种情况. 因为一直保持中立, 在日后决定俘虏问题上反而起到了重要的作用. 这里还能看到印度将军. 这是选择前往中立国家的俘虏们前往印度之前的照片.

这一场景在《广场》里很有名. "去哪边呢?" 韩国和朝鲜的军官问道. 虽然实际历史略有不同, 但让我们以一种文学上的允许来通过吧. "中立国," 主人公李明俊说道. 虽然各种利诱接连不断, 但始终是中立国. 韩国小说在解放后经过分裂和战争, 与完全不同于之前的空间相遇了. 整个韩半岛的附加, 而是被拦腰截断的韩半岛. 这是至今仍在持续, 绝对无法轻易超越的制约. 比1986年以前, 大部分韩国人被禁止海外旅行时更甚, 这意味着完全封闭的地区. 就像被困在韩国一样. 实际上可以说是一个岛屿. 《广场》正是以逆说的方式展现了被困在这个岛上的人们的广阔的想象力. 因此, 要求我们重新思考现在被困状况的起源—韩国战争, 并提出要企划其他历史. 从这一点来看, 《广场》可以说是和4·19这个事件相通的小说.

1960年的4·19事件非常重要. 这不仅驱逐建国以来10多年间的总统李承晚的事件, 也是对之前支配韩国人的贫困的绝望. 或者是对非民主、独裁的自暴自弃? 是超越这一切的事件. 希望以后有机会再考察一下.

4차시 개발-성장과 그 이후, 또는 국민과 인류

在谈到今天的韩国时, 很难不提到朴正熙这个人物. 朴正熙是1963年至1979年大韩民国的总统. 在1963年成为总统之前, 他已经掌权了2年. 1961年发生了5·16政变. 这正是朴正熙成为主角的事件. 如果是对韩国稍微感兴趣的人, 也许对4·19和5·16这种叙事很熟悉. 李承晚在建国以来的10多年里担任总统, 引发了各种问题, 1960年因4·19事件而从权力宝座上退了下来.

4·19事件是以大学生为中心, 几乎是全国规模的要求民主起义的事件. 可以说是造就今天韩国的重要基因. 韩国的街头示威不是很有名嘛. "所以4·19以后我们就生活得很好", 如果是这样就好了, 但这种事很少发生. 4·19以后的一年左右, 似乎真的持续了严重的混乱. 知道了示威的味道的人们在各种琐碎的不便中选择了这种方法, 要求各种权利的声音也沸腾了, 另一方面政党泛滥, 媒体也增加了, 从某种角度来看, 混乱, 从某种角度来看, 理所当然的多样性的开化, 但有点混乱. 总体来说, 似乎无法忍受这种情况.

1961年5·16事件就是在这种混乱或宣泄后发生的事件. 追究这一事件的政治意义就此略过了. 现在与韩国人、韩国朋友聊天时, 对朴正熙的反应可能会大相径庭. 有些人很喜欢, 有些人很讨厌. 在此不会讲政治性的话题. 以经济成长为中心, 今天稍微看一下70年代的小说, 然后稍微跳过, 思考一下今天韩国小说的时空.

1963年成为总统以来, 以朴正熙为中心的政治权力引领全国性开发的速度令人惊讶. 实际上, 如果以收集意见的民主方式进行开发, 速度必然会变慢. 我不知道. 当时即使很慢, 只要一步一步走下去, 现在我们是不是生活在基础更加坚实的世界, 更加相互信任的世界里, 我会产生很多这种想法. 比起朴正熙主导的速度战, 如果当时选择其他道路的话...但实际上发生的是以朴正熙为中心展开的速度战. 上面所看到的是建设高速公路的照片. 和今天的京釜高速公路看起来很不一样. 下面是江南开发的照片. 江南这一地区本身就是很难想象没有高速公路的地区. 大家知道江南吧. 我想大家应该都知道, PSY的《江南Style》也在这里. 流经首尔市中心的河流是汉江. 汉江南边叫江南. 其中特别是瑞草、江南区一带被称为江南. 该地区要想连接首尔旧市中心, 当然需要桥梁, 虽然这坐座桥是从殖民地时期开始建成的, 但现在被称为汉南大桥的桥梁直接与高速公路相连成为桥梁, 加速了江南的开发. 据说江南地区的地

价上涨了1000倍, 2000倍. 内幕也很复杂. 也掺杂了一些政治内幕, 就当作不是今天的话题了.

翻阅1960年代和1970年代的开发和成长, 就会遇到公寓的现象. 当然, 如果探寻其基础的话, 应该说是工厂或农村地区的变化. 在日常感觉中感受到的变化之一就是公寓. 左边是1960年代在汝矣岛即将建成公寓的照片. 右边是更有名的照片. 在江南, 一边现在正在建设公寓, 一边是农民耕地的场面, 不过这是50年前的事情. 今天的首尔呢? 首尔不断变化的时候, 有很多试验首尔空间的文学可能性的作家. 其中, 我想简单介绍一下崔仁浩和朴婉绪. 希望能有其他机会可以仔细考察.

崔仁浩作家是1945年生, 正好是解放的那一年出生的. 此人被称为70年代青年文学的旗手. 是以摩登的文体、新鲜的感觉而闻名的人. 如果问"有什么那么新颖的呢?", 很难说清楚. 可以说, 对世界上正确的事物没什么执着, 对政治正确没什么执着的那种轻快的感觉. 可以说简短而快速的短文, 也可以说对城市年轻人的深切关心. 此人写的小说中有一部1971年出版的题为《他人之房》的小说. 大家先来看一下这个.

《他人之房》, 1971年, 与刚才在幻灯片上看到的公寓建设的场面几乎是同时的. 《他人之房》中的主人公是一位年轻男子. 好像刚结婚没多久. 这个人住在看似公寓的空间里. 出差几天后, 正在回家的路上. 理所当然地认为妻子在家, 但叮咚叮咚叮咚, 没有回应. 然后从隔壁出来问"你是谁?"是走廊式公寓吗? 然后发生的场面就是这个场面. 虽然主人公说"我是住在隔壁的人", 但邻居说"我在这个公寓生活了3年, 没见过像你这样的人啊", 在这样开始的骚乱中, 主人公虽然回了家, 但没有看到妻子, 被其中的事物逐渐变大的幻想或幻觉所吸引. 桌子好像变大了, 椅子好像也在主张自己的存在, 冰箱好像在嗡嗡叫, 以这种方式. 在此过程中感觉自己逐渐成为事物被卷入其中, 这就是这部小说的粗略概要.

最近大家都住在哪里呢? 在韩国, 住在集体住宅里的人口突破50%已经过去了20年左右. 据说, 最近除了集合住宅, 即公寓外, 如果把多世代、多人口、这种方式的住宅包含在内的话, 其比率超过80%. 公寓也是非常韩国化的现象. 听说任何人来韩国的话, 看到林立的公寓都会吓了一跳. 虽然不知道以后景观会有多大的变化. 到底为什么公寓在韩国人中如此受欢迎呢? 只是作为居住空间, 还是作为一种投资的媒介? 韩国人仍然喜欢公寓的原因是什么呢? 会产生这种想法. 考察公寓的文化史时经常遇到的场面就是这样的, 虽然住在隔壁, 但我不认识你. 这种场景开始已经50多年了.

作家朴婉绪比刚才看到的崔仁浩年纪大很多. 比崔仁浩大10多岁, 但活动开始得比崔仁浩晚. 所以把顺序放在了后面. 今天将要看的《相似的房间》这部小说也比崔仁浩的《他人之房》

晚了3年. 听说实际上作家朴婉绪搬到公寓是在80年代初. 说是普门洞, 就在高丽大学附近. 朴婉绪在那里生活了很长时间. 后来在80年代初搬到了位于蚕室的公寓. 很多人70年代开始向往公寓, 80年代开始搬家, 经过90年代, 到了21世纪, 大体上看起来像是无论如何都要在公寓里安家, 至少就像努力在公寓里安家一样. 问我住在哪里吗? 我主要住在公寓里.

《相似的房间》中的叙事就是这样的. 年轻的主妇搬进了公寓. 这是梦想已久的公寓. 太开心了. 我有双胞胎儿子. 双胞胎儿子们似乎也更加健康地成长. 但问题是, 我的生活和隔壁、楼上楼下无数人的生活并没有什么不同. 好像都在追求相似的东西, 大家好像都在变成相似的形态. 这种感染的速度在公寓里是惊人的. 就是那样. 邻居家装上了什么样的窗帘. "听说那个窗帘很好看." 一下子流行开来. "听说吃什么, 最近流行那个." 一下子流行开来. 也许是有点问题的人物, 这部小说的主人公渐渐对那种情况感到厌倦. "这些相似的房间很可怕." 而且就像象征和比喻这一相似的情况一样, 还有双胞胎儿子. 儿子们的名字也总是叫错. 然后知道这是什么吧. "用一只眼睛做独眼龙, 通过豆粒大小的玻璃片确认下班的丈夫的脸," 因为公寓不是可以这样打开大门的结构. 而是通过猫眼看外部的存在. 感到这件事太不人道了. 在这种情况下生活的人, 以后会怎么样呢?

这个读小说的话就知道了. 作为朴婉绪的小说, 以多少有些冲击性的结局而闻名. 不知道读完这本小说的结局会有什么想法, 不知道会不会不愉快. 这一时期是50年前. 跨越了50年. 虽然50年间发生了很多事情. 有持续的增长, 也有1987年所谓的民主化, 也有从1998年开始发生的所谓IMF状况, 还有需要接受国际金融救济的情况. 最近在韩国, 脱增长乃至低增长的话也成为了问题. 如果问最近韩国年轻一代, 他们最关心的问题之一就是气候变化. 虽然会有性别问题或其他各种重要问题. 正如气候变化一词所象征的那样, 现在我们面临的不是以国家为单位的问题, 而是以全球为单位的问题. 可以说情况发生了变化.

小说是从根本上与民族、国家、时代的政治性产生共鸣的体裁. 看起来是这样. 如果说在政治上与民族国家, 阶级与资产阶级、经济上与资本主义产生共鸣的体裁是小说的话, 那么可以说现在是小说从根本上经历形态变化的时期. 所以我想简单介绍一下最近活动的SF作家, 来结束本课时.

这一空间是宇宙, 虽然不知道我们会不会活着亲眼看到这样的空间. 两个太阳, 十个月亮, 超越男性和女性的性别, 第三性别, 在宇宙中一切皆有可能. 因为以未来为背景, 所以可能任何想象都是可能的. SF就是这种题材, 通过想象未来来改变现在的题材. 而且, 在SF中, 性别、阶级、国家等这些问题被明显地次要化. 虽然不可能不重叠, 但人作为人类物种、作为Homo sapiens, 与世界相遇才是SF的世界. 最近在韩国最活跃的小说有很多SF题材. 其中, 金草叶这个作家应该是人气最高的作家. 本人也专攻科学技术方面. 毕业于浦项的浦项工科大学. 而且还是很年轻, 1993年出生. 金草叶老师, 您好. 回想起了不久前见面的记忆. 写了

这些小说.

《如果我们不能以光速前进》,《刚刚离开的世界》,这两本是小说集.《地球尽头的温室》是最近出版的长篇小说.《地球尽头的温室》,会是什么故事呢?听说已经影视化了,可以很快通过电影见到吗?几乎消失的地球复活了.在这个重要的关头,发生了堪称‘地球尽头的温室’的事件和存在.展现了寻找这些的过程.今天将以短篇小说集中简单地各展示一部作品的方式进行.

这是《如果我们不能以光速前进》中出现的小说《朝圣者为什么不回来》的一部分.这些朝圣者是属于其他社区的人.在该社区,每年都会选出几十名年龄到一定年龄的人,作为朝圣者送往地球.现在地球是外星了,但在这里,这里真的是一个宁静平和的地方.没有矛盾,也没有高声争吵的人,从大的方面来说,没有展现足以成为其根源的性别、阶级或地区的严格区分本身.这部小说的话者在其中经历了与自己亲近的某个人去朝圣后永远不回来的事件.这等于是对不回来的原委的解释.地球是一个痛苦的地方.而这里接近乌托邦.尽管如此,朝圣者还是选择留在地球上,是因为什么呢?当然,与全体朝圣者相比,只不过是少数,但地球虽然是位于这里的这个社区的初始形态,但是堕落的地方,是已经陈旧的地方了.如果说这里是新世界,那么那边就是旧世界了.但那里存在矛盾、问题,也存在着爱情.可以说这就是这部小说的粗略概括.

这样概括起来,确实对作家感到很抱歉.原来所谓小说就是要读原文才能知道.地球和外星的乌托邦,是韩国小说中从未见过的空间.来看一下题为<最后的狮子>的短篇小说.在这里,地球干脆从背景中消失了.两颗外星行星登场.一颗行星是话者出发的行星.另一颗行星是在话者的行星上被命名为3420ED的行星.随着对故事的逐渐了解,3420ED的历史是不朽者的城市,这是核心.也就是说,这里曾是长寿的人、拥有不朽基因的人居住的城市,但这里却出现了传染病.所以大部分人都逃脱了.只剩一个人,负责照顾这个地区还存在的非人类,

即机器人、机器等存在.是两个故事交织在一起展开的故事.来到这里,不仅是地球和外星,而且人类和非人类之间的距离也变得模糊不清.或者越来越接近.

这样看来,最近我们与人工智能交往、生活得很密切.真的在体验发生各种变化的世界.昨天不是和人工智能聊天了吗?我也有些紧张.还让我画画.不知道我们会以什么样的方式共存,人类之间或非人类的生物种类,或非生物的其他存在.韩国现代小说长期以来一直居住在韩国的时空、韩半岛这一地区,但同时也没有放弃对其他地区的关心、与其他地区的连带等.现在又是新的时期,我认为韩国小说的面貌也会有所不同,大家应该也都一样.很期待以后会看到怎样的面貌.